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84.55	↓ 코스닥	919.16
	(+20.84)		(-0.58)
↑ 금리 (미국 9년)	3.738	↑ 환율 (원/달러)	1319.80
	(+0.049)		(+1.00)



연령 제한 대신 한도 줄인다... DSR 40년 적용 검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손질

전국 아파트거래 반년새 2배 급증
부동산 흐름 맞물려 실효성 의문

기존방식보다 대출비중 축소 돼
대부업 등 내몰려 부채의 질 악화

금융당국이 실제로는 50년만기 주택 담보대출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다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더라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만기 주담대 심사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금융권이다. <관련기사 2면>

◆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국내 5대은행(국민·신한·

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조5912억원 늘었다. 지난 6월(6332억원)과 7월(9755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이 514조9997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2조11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의 75%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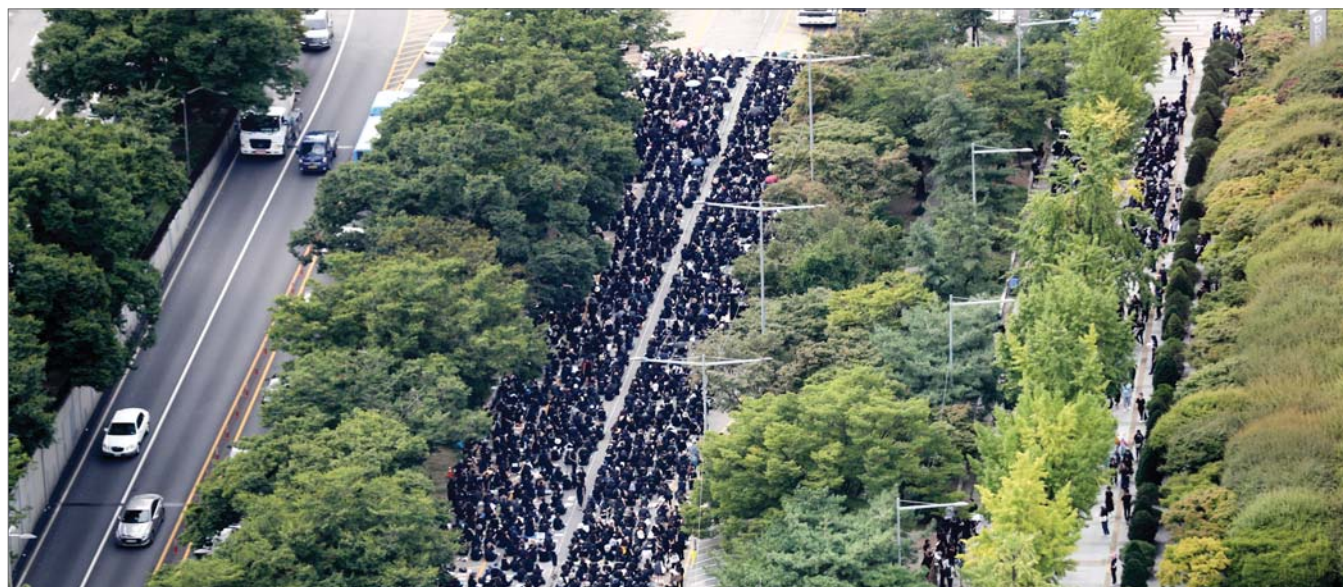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개인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오고,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주담대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올해 1월 1만7841가구에서 7월 3만6260가구로 2배가량 뛰었다.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 1161가구에서 3804가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당국, DSR 40년 적용 '실효성 의문'

이에 대해 일각에선 50년만기 주담대에 DSR을 40년을 적용할 경우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5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DSR 비율(40%)를 적용하면 연간 상환가능한 원리금은 2600만원이다. 현행대로 은행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세 일인 4일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와 시민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L7면> /뉴스

에서 4.5%의 금리로 50년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5억1600만원이 나오지만, DSR을 40년으로 줄일 경우 한도는 4억8100만원이 나온다. 기존방식보다 한도가 약 7%, 3500만원이 감소한다.

주담대 한도가 감소하면 부족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이어져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오히려 한도가 줄었으니 추가 부채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50년만기 주담대가 공급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공급하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50년만기로 늘렸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올 4~5월부터 증가한 가계대출 흐름은 부동산 시장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부, 수출 반등 총력전... 연내 181조 마중물

인프라 보강, 품목·지역 다변화 등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확정

수출이 11개월째 하락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반등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무역·수출 지원 등 수출 인프라 보강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골자다.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 보강한다. 수출기업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3984개사 대상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기업 수와 기업당 지원 금액을 늘리는 한편, 수출 실적에 없는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도 발굴해 지원하고,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에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 공장 특허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비전문인력(E-9) 1만명, 숙련기능인력(E-7-4) 3만명 등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연말까지 추가하고, 내년까지 쿼터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 주력산업 지원 품목·지역 다변화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당 50억원 한도 연구개발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차세대 전기 연구개발 신속 예타를 추진한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日, 경제성장률 1위 질주 韓은 OECD 평균 턱걸이

韓, 올해 성장률 1.4% 전망
日은 상반기에만 2.4% 성장

일본이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1위까지 치고 나가는 사이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최근 세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올해 1분기(전분기대비)에 0.3%, 2분기에 0.6%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1, 2분기 합) 0.9%로, 2분기까지의 성장률이 공개된 31개 회원국 가운데 12위에 그쳤다. 한국 성장률은 OECD 평균(1분기 0.5%·2분기 0.4%)과 같다.

반면 일본 경제는 1분기 0.9%, 2분기 1.5%로 상반기에만 2.4% 성장했다. 31

개국 중 2%대 성장률을 나타낸 상위 3개국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수치가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전년대비)로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성장률 목표 1.4%로 잡고 있다. 연말까지 우리나라는 GDP성장률이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저성장의 대명사였고, 한국은 성장률에서 일본에 줄곧 앞서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에도 한국은 1분기 1.8%, 2분기 0.9%, 3분기 0.1%, 4분기 1.4% 등으로 일본(-0.3%, 0.5%, -0.4%, 1.1%)에 앞섰다.

그러나 2022년 들어 2분기(한국 0.8%·일본 1.3%)와 4분기(한국 -0.3%·일본 0.0%)에 상대국에 뒤처지는 흐름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북한 비핵화·불법행위·인권, 국제 사회에 공조 촉구할 것"
▲ 與 "윤미향, 임수경 시즌2... 의원직 제명해야" <사진 뉴스스>

▲ 대통령실, 안보실 인사에 "채상병 사건 꼬리자르기 아니다"
▲ 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 입법예고



▲ '친명계' 정진욱, 이재명 대표 동조 단식 농성 돌입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사진 뉴스스>

尹, 전략적 다자외교전 펼쳐… 무력도발 ‘北 해법’ 찾을까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내일 아세안+3 회의 참석하고
7일 18국 정상과 안보현안 논의

한중·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때
북한에 상당한 압박 작용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문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자유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전략적 다자외교전에 돌입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 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시행하면서 무력강화를 주문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오는 9일 정권수립 75주년을 맞은 구구절에 ‘민간무력’ 열병식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월과 7월 열병식을 한 데 이어 3번째 열병식으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한 해 동안 열병식을 3차례나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10월 중 3번째 정찰위성 시험을 한다고 예고한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바르샤바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얻은 국제적 위상과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책임을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한중 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한 지 꽤 됐다”며 “어떻게든 바람직하게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중국과 협의하고 있고, 계속 충실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정찰위성 발사실패, 내부의 경제 사정, 사회 결속력 도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 북한의 도발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도발의 일정과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실제 실력과 걸로 보이는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일중)’ 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7일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개선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지 등을 밝힌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 참석을 필두로, 방일을 통한 한일관계의 획기적 개선, UAE(아랍에미리트)·미국·베트남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폴란드 방문 등의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오면서 동맹외교와

파트너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의 자산을 축적해 왔다”며 “특히, 4월의 미국 국빈 방문과 8월의 캄보디아 한미일 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국이 자유와 연대의 중추적 행위자로서 글로벌 협력의 담론과 표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축적한 이러한 외교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는 남은 하반기에도 주요 다자무대와 지역외교의 장에서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기여가 우리의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글로벌 차원에서 강대국 간 가치·이념·이익 경쟁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익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우리의 실용 네트워크, 비즈니스 외교를 확장하는데 인니와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정부, 수출반등 총력전’서 계속

한달새 주담대 2조 ↑… 금융당국, 대출문턱 높인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515조

집값 바닥론 확산에 수요 키움

50년 만기 대출→40년으로 축소

인터넷은행도 대상자 조건 줄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예정된 가운데 금리까지 상승해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달 말 주담대 잔액은 514조9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512조8875억원 대비 2조1122억원 불어난 규모다. 집값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주담대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한 달간 1조5000억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끌어 올리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를 지목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50년 만기 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종전 대비 10년을 축소키로 했다. 대출만기가 40년으로 좁혀지면 한도는 수천만원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50년 만기(현재 은행권 평균 금리 연 4.4%, 원리금균분상환조건)로 대출을 받는다면 4억 8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기를 40년

로 좁히면 매월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약 3000만원 줄어든다. 인터넷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부터 주택 구입자금 주담대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가구’로 변경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와 40년 만기 주담대 금리가 같은 은행에 금리를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 만기가 10년 더 길어지면 리스크 또한 확산되므로 금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코픽스와 은행채(5년)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02%포인트(p) 오른 4.28%로 2개월 연속 올랐다.

금리조건별로 코픽스 상승에 변동형이 0.04%p 오른 4.45%를 보였고, 고정형은 4.22%로 0.02%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던 주담대 금리는 6월에 이어 7월까지 두달 연속 상승했다. /구남영 기자 koogja_jea@

韓中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간 협업체계 구축 세일즈외교로 밀착지원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국을 포함한 주력 수출시장 대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과 연계한 유망품목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 하반기 흑자 유지 전망… ‘4분기 수출 플러스’

정부는 수출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6월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하반기에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업종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과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흐름이라는 진단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에 승소

과징금 229억 부과는 ‘적법’

총수 일가 지배 회사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에서 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

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한데 이어,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이 경영한 위장 계열사로 총수 일가 재산 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매각된 후에도 지원 행위는 지속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2021년 1월 각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1년새 리튬가격 반토막... 韓 배터리업계, 수익성 확보 '비상'

中 업체 등 재고 ↑... 수요 주춤
리튬 원가-양극재 가격 시차 존재
환율 하락 겹치며 실적 영향 전망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소재 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톤(T) 당 19만 5500위안(약 3548만원)으로 6월에 기록한 최고가 30만 500위안(약 5455만원)과 1900만원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4월 말 15만 2500위안(약 2768만원)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지만 지난해 동기 47만 6500위안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 리튬 가격의 급락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튬은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중 하나다. 특히 배터리에 필수인 양극



전기차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샘플과 원통형 배터리 사진. (왼쪽부터)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리튬은 가장 가볍고 반응성이 강한 금속이다. /포스코케미칼

재는 2차전지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리튬은 양극재 생산 원가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리튬 가격은 배터리 제품의 수익성과 직결돼 전기차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튬이 초과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중국 CATL, BYD 등 배터리 업체들의 재고가 늘면서 수요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리튬을 사용하는 양극재 업체들이나 완성차 업체들에는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비싼 가격에 원료를 매입한 양극재 업체들로서는 판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리튬 원가

와 양극재 가격 반영 시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겹쳐 단기적인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양극재 판가부진으로 상반기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소재사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바 있다.

또한 리튬 가격의 급등과 급락은 한국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과도 연관이 깊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들은 메탈 가격에 연동된 판가를 토대로 납품 계약을 맺는다. 리튬 매입시기와 판매 시점의 격차가 일어나면 비싸게 산 리튬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리튬 가격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더 올라가고 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배터리 리튬 메탈 리포트’를 통해 2028년에 탄산리튬 가격이 t당 13만 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리튬 생산량이 느는 속도에 비해 리튬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SNE리서치는 “리튬 채굴 국가가 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을 만족하는 리튬 공급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망 다변화에 기대를 건 것이다. 실제로 기존 남미, 호주 등 소수 국가에 국한되어 있던 리튬 채굴 국가가 북미, 유럽, 아프리카로 서서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판가 연동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상승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출이 단기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수요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전자, 주가 7만원선 복귀 전고점 9만원대 돌파 전망도

엔비디아 등 HBM3 승인 주효
외국인, 기관 대규모 순매수

‘7만 전자’로 복귀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고점인 9만 1000원도 넘어설 것인 전망이 나왔다. 엔비디아 효과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까지 호재로 작용했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28% 오른 7만 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 2900원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한달여 만이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 고객사 확보에 대한 우려로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이 경쟁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향후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직전 고점인 9만 1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효과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로부터 HBM3 최종 품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4분기부터는 HBM3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HBM 5세대 제품인 HBM3P에 대해서도 4분기에는 엔비디아, AMD에 샘플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축소할 것”이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들로도 HBM3를 신규 공급할 것으로 보여 내년 삼성전자의 HBM3 고객은 최대 10개사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HBM 설계,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HBM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HBM의 경우 향후 2년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동시에 매집에 나서며 등 수급도 긍정적이다. 이날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모두 삼성전자였다.

특히 외국인은 6% 이상 급등했던 지난 1일과 이날 순매수한 물량만 각각 794만주, 796만주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 이틀간 순매수한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잘나가는 #우리들의 핫플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3. 9. 11 (월) ~ 9. 13 (수)
- 세종캠퍼스 : 2023. 9. 11 (월) ~ 9. 15 (금)
- 접수처 : oku.korea.ac.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전동화·자율주행 주도권 치열... 韓 기업 ‘초격차’ 뽐낸다

IAA 모빌리티 2023

글로벌 산업계가 오랜만에 모터쇼에 총집합했다. 유럽 기업들이 전동화 시대에도 주도권을 이어갈 새로운 전략들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소개하며 ‘초격차’를 뽐내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AA(Internationale Automobil Ausstellung) 모빌리티가 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다. 이를 앞두고 4일 프레스테이를 통해 참가 기업별 전시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IAA는 세계 최대 모터쇼로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계승한 행사다. 1897년부터 이어지다가 2021년부터 자리를 뮌헨으로 옮기고 이름도 IAA 모빌리티로 바꿨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는 물론 전장 업계까지 대거 참가를 결정하면서다. 주제도 ‘Experience Connected Mobility’로,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현실로 다가온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기술을 겨루는 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 전동화는 필수, 어떻게 하나

올해 IAA는 미래 전기차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업계가 전기차로 방향성을 설정한 상황, 저마다 다른 기술과 전략을 내놓고 경쟁하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전동화 기술력을 소개한다. 현대자동차·기아를 넘어서 주요 전장 기업으로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세계 최초 대형 전동화 SUV인 EV9으로 검증받은 배터리시스템(BSA)과 동력전달(PE)시스템을 비롯해, 차세대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 프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고객경험 테마 ‘Alpha-able(알파블)’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시

전동화 플랫폼인 e-CCPM를 비롯한 신기술 20여종을 내놨다.

뮌헨을 거점으로 하는 BMW는 새로운 콘셉트카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와 함께 뉴 5시리즈 PHEV를 처음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새로운 모델을 내놨다. 수소연료전지를 쓴 iX5도 함께 전시하며 전동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드러냈다.

완성차·전장업계 역대 최대 참가 미래 전기차 발전논의 가장 활발 전기차 기술·전략 총동원 경쟁

BMW 경쟁사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적진’ 한 가운데서도 야심찬 전동화 계획을 밝혔다. 새로 개발한 MB.OS에 최대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높인 콘셉트 CLA 클래스가 주인공이다. 새로운 모델형 아키텍처 MMA 플랫폼으로 800V 고전압 시스템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비를 8.3kwh/km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양방향 충전 기술인 V2V도 적용하고, 모터에는 중회로류 함량을 거의 0%로 낮춰 친환경성도 높였다.

폭스바겐그룹은 브랜드별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폭스바겐이 고성능 전동화 모델인 ID.GTI 콘셉트와 MQB 이노 플랫폼을 적용한 9세대 파사트를 공개하는 한편, 골프 등 기존 모델은 2033년까지 내연기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우디는 액티브 스피어 콘셉트와 함께 첫 PPE 플랫폼 기반 Q6e-트론을 공개했다. 그룹 차원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성공’을 키워드로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는 포부를 밝혔다.

◆ 혁신 전장 경쟁 본격화

올해 IAA가 규모를 대폭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전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영향이 컸다. 특히나 삼성이 처음으로 모터쇼에 참가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진 분위기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기술은 물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6월 처음 공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주인공. 현대차·기아가 아닌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를 정조준했다.

전장용 OLED를 집중 육성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전을 위해서는 LCD보다 OLED가 적합



삼성디스플레이는 세이프 드라이빙 센터를 통해 전장용 OLED 안전성을 소개했다.

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세이프 드라이빙 센터’를 비롯해 롤러블은 물론 슬라이더블과 멀티폴더블 등 다양한 전장용 OLED 폼팩터를 소개하며 미래 모빌리티를 더욱 혁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격차를 앞세워 ‘토탈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이다. 차량용 반도체에서 조명까지 다양한 전장 라인업을 소개하며 현지 완성차 업체를 정조준했다.

LG전자, 헝가리 생산기지 구축 삼성디스플레이, 전장용 OLED 육성 현대모비스, 인포테인먼트 소개

고성능은 물론 안정성을 높이고 저전력까지 실현한 메모리 제품들, LP DDR5X와 오토SSD, 세계 최초로 만든 GDDR7과 차량용 UFS 3.1도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를 공략한다.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오토 1H1, 운전중 졸음 등 위험을 경고하는 모티너링 시스템도 함께 소개했다. 반도체 기술로 만든 최첨단 조명

도 함께다. 완성차 업체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도 만들어준다.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기업에 수주를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은 파운드리 사업부는 ADAS용 SoC와 전력관리 반도체(PMIC) 등 최신 기술과 함께 차량용 솔루션 인프라를 내세웠다. 전장용 반도체 공정을 2025년에 4나노, 2026년에는 2나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자신했다.

이와 함께 삼성SDI가 냉각 시스템을 상하부에 추가해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폼팩터 배터리를 소개하며 유럽 고객사 공략은 물론, 처음 현지 채용 설명회를 열고 우수 인력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따로 부스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헝가리에 새로운 파워트레인 생산 기지 구축을 발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더했다.

아울러 콘티넨탈이 콘셉트 타이어나 스마트 콕핏 HPC 등, 보쉬가 기존 차량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더할 수 있는 독립형 비디오 인식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기술들이 소개됐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코로나19 끝났다”... 애슐리·빽스 ‘문전성시’ LG마그나, 유럽 첫 파워트레인 공장 구축

패밀리 레스토랑의 ‘화려한 컴백’ 빽스, 핵심상권 공략·고급화 전략 애슐리, 차별화로 체질개선 나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히 하락세를 맞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외식업계를 주름잡았던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은 1인가구 증가와 배달 음식이 유행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외식업계가 회복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발길이 쏠리고 있다.

◆ 고물가 시대에 고급화 전략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빽스는 지역별 핵심 상권 공략과 고급화 전략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익성이 낮은 매장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거점 매장은 프리미엄 매장으로 리뉴얼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2018년 말 61곳이었던 빽스 매장은 2019년 말 기준 41개, 현재 28곳으로 줄었다. 매장 수는 줄었지만, 외식 부문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흑자를 달성했다.



애슐리퀵스 매장 앞에 고객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주, 부산, 인천 송도 등 주요 지역에 프리미엄 타입 매장을 선보여 왔다. 해당 매장들은 기존 오리지널 매장에서 프리미엄 매장으로 재탄생한 곳들로 리뉴얼 이후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 W스퀘어점은 광안대교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장으로, 부산을 넘어 경남을 아우르는 지역 대표 외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프리미엄 요소를 강화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며 “특히 와인과 맥주, 각종 치즈와 핑거푸

드를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와인&페어링존’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 매장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CJ푸드빌은 추후에도 서울권 외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같은 가격이면 뷔페”

이랜드이츠의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애슐리’도 체질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

애슐리는 2010년대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가 부흥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사들 사이에서 차별화하지 못하고 침체를 맞은 바 있다. 한 때 140개 가까이 되던 애슐리 매장은 현재 60개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매장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며 ‘애슐리 클래식’, ‘애슐리 W’로 구분되었던 매장 형태를 ‘애슐리퀵스’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모든 매장이 애슐리퀵스로 200종의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한식, 양식, 바비큐, 샐러드는 물론 2020년 영업을 종료한 초밥 뷔페 ‘수사’ 메뉴를 애슐리퀵스에 통합하면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헝가리서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 구축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유럽에도 전기차 부품 생산 전진 기지를 마련했다. LG마그나는 4일(현지시간) 독일 IAA모빌리티 2023 개막에 앞서 마련한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헝가리 미슈콜츠시에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공장은 LG마그나가 처음으로 유럽에 만드는 공장이다. 2025년까지 2만6000㎡ 규모로 만들어져 구동모터를 시작으로 핵심 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200여명 신규 인력 채용도 준비 중이다.

LG마그나는 유럽 완성차 주요 고객사들과 접근성 및 마그나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헝가리를 신규 공장지로 낙점했다. 마그나는 헝가리에 자동차 차체와 새시를 만드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LG마그나는 미슈콜츠시가 우수한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럽 완성차 공장도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현지 정부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LG마그나는 신규 공장을 거점으로



LG마그나 헝가리 공장 이미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거점을 인천과 중국 남경, 멕시코 라모스 아리즈페에 이어 4개로 확대, 주요 완성차 거점들을 모두 공략할 수 있게 됐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정원석 대표는 “신규 공장 설립은 유럽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LG마그나의 성장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석현 VS사업본부장은 “유럽 공장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를 충족하며 혁신적인 전기차 파워트레인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인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예결위 4일차, 非경제분야 결산심사

“윤미향, 조총련 접촉” vs “이종섭,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국민의힘 윤 의원, 친북단체 행사 참석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징계안 제출
민주당 이 장관, 혐의자 미특정 지시 군사법원·직무수행법 위반 지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비경제분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첩 보류했는지 과정을 들여다 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발생 100년을 맞아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관용차 등을 지원받는 등 국민 혈세가 쓰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 자비로 외국에 나갈 시, 의원의료로 폭넓게 인정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한 후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조총련

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의 재일 동포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한 조총련 인사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양금희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은 올해만 18회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 의원이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신고한 바가 없다

고 한다.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위반했다. 사전 접촉 건에 대해 신고한 바 없다.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속진상을 집중 질의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후 이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수사자료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경찰에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 점을 들어 군사법원과 직무수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 7월 31일 오후 6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 상병 의사가 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상급자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언론 노출 시 BH(대통령실), VIP(대통령)는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사단장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국방부 누구도 (혐의자에) 누구를 넣고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오후 6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BH와 VIP를 끼워넣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오염수 저지’ 국제공동회의 개최 美·中·日 전문가 참여... “방류 성급”

美, 日 농수산물 수입 최대 감축
세슘-137, 방사성 물질 양 안 줄어
방사성 원소 제거 못해... 암 발병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전문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사회 여론 결집을 위한 연대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 위성곤 공동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패넬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넬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넬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0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 인권이사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

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발제에 나서 “지나 3일 이재명 당 대표의 명의로 10월 초 예정된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88개국 당사국 수반에게 전달했다”면서 “런던협약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이 11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가 오염수 투기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알프스

(ALPS·다핵종저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하수로 바다에 빠져나가는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수 농도 추이를 정기 조사하고 있는데, 세슘-137의 경우 방사성 물질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어디선가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가 고농도로 오염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벅슨 공동대표는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며 방사성 원소의 장기적 체내 축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했던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연구가 한번도 없었다. 과거에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는 일이 있었으나 해양 생명체와 인간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원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했다.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보인다”면서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면, 인구 집단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이후 당시 재해에 노출된 젊은 층에서 갑상선 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젊은 층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당 로고 변경 검토

당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해석

막에 기존 로고인 ‘ㄱ’이 아닌 ‘ㄱㅎ’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재의 로고를 만든 지 3년 만으로, 총선 전 당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토 중인 새 로고는 당명에서 따온 ‘ㄱㅎ’에 당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검토 중인 새 로고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백드롭(배경 현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드롭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제는 국민의 힘”이라며 “앞으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국민의힘의 역량을 정부와 함께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기현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 대응해달라”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간담회 현재 13만명·8000억 이상 체불 발생

할 것 같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생 행보 강화’를 선언한 김 대표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 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작년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김 대표는 “임금체불 행위가 악덕 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경우 실효적 대책을 철저히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상습체불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노동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편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환전하는 편
낮선 화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18개국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12/31)



해외 ATM 수수료
부담 제로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목표환율에 맞춰
자동 환전 가능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7 (2023.06.22~2024.05.31)

‘연체율’ 과제 저축은행... “NPL 가격 낮춰야”

(부실채권)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 5.33% 대손충당금 확대로 손실 962억

부실채권 매매 민간 확대에도 매매가격 높아 거래는 부진 건전성 방점 매매가 조정 가능성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매매를 민간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다. 저축은행의 하반기 과제가 연체율 낮추기인 만큼 눈높이를 낮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연체율은 5.33%다. 지난해 상반기(2.69%)와 비교하면 2.74%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평균 연체율은 4.04%에서 5.12%로 1.08%p 오른 것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는 1.78%에서 6.35%로 4.47%p나 치솟았다.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기업이 세 배 넘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상반기 저축은행의 손실은 9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900



저축은행의 주요 하반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연체율 낮추기다.

/뉴시스

억 원 가까이 벌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1조원에 육박한다. 이자 비용 상승과 함께 높아진 연체율 탓에 대손충당금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다. 하반기 저축은행이 실적 반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체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민간을 통해 채권 매각을 원한다면 매매가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수요를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이 저축은행의 NPL을 매입하더라도 캠프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큰 격차를 벌리

는 어려울 것이라 설명이다. 올해 저축은행권에서는 캠프가 NPL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자 잡음이 등장한 바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PL의 가격은 상환 가능성에 따라 형성된다. 지금보다 가격을 낮춰도 수요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저축은행권이 고집을 떨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하반기 연체차주 및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나이지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저축은행이 NPL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업계에서

는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저축은행의 NPL을 매입할 유인이 없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저축은행권은 NPL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자산 규모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5.12%로 지난해 상반기(2.54%) 대비 2.58%p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대손충당금 확대로 이어져 순이익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NPL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NPL 매각 창구를 캠프에서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 5곳(우리금융F&I·하나F&I·대신F&I·키움F&I·유암코)을 선정해 NPL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NPL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 셈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NPL을 무리해서 판매했다가는 결국 ‘폭탄돌리기’란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매매에 나설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우리은행 ‘상생금융’ 전세사기 피해자에 연체이자 면제 시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상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상호금융, 기업대출 중심 건전성 악화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186억 농협 소폭 늘고 신한·수협 적자 기업대출 연체율 1.98%p 증가

올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이 실적 악화와 함께 자산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신협·산림·수협 등 상호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1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7억원 감소했다.

순이익은 신용사업부문(금융)이 3조7657억원으로 이자이익 호조에 4879억원 증가했다. 반면 경제사업부문은 손실 1조7471억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농협의 상반기 순이익은 2조99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소폭 늘었다. 반

〈대출 차주별 연체율 현황〉

(단위: %, %p)

구분	2021년말	2022년말(A)	2023년 6월말(B)	증감 (B-A)
가계	0.82	0.91	1.43	(0.52)
기업	1.76	2.23	4.21	(1.98)
개인사업자	1.33	1.39	2.52	(1.13)
법인	2.32	3.38	6.52	3.14
총 대출	1.17	1.52	2.80	(1.28)

면 신협과 수협은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은 신협이 669억원, 수협이 226억원이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717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2% 늘었다. 총대출은 502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중앙회 등 예치금이 154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조합당 평균 자산은 4.3% 증가한 3243억원이다. 총수신은 612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4.1% 늘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2.80%로 작년 말 대비 1.28%포인트(p)나 상승했다.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4.21%로 1.98%p나 뛰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43%로 0.52%p 상승했다.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91%로 작년 말 대비 1.07%p 높아졌다. 기업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정 이하여

신비율이 작년 말 2.66%에서 올 상반기 4.45%로 1.79%p나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26.7%로 작년 말 대비 13.3%p 하락했으나 요적립률인 100%는 웃돌았다.

순자본비율은 7.97%로 작년 말 대비 0.29%p 낮아졌지만 최소 규제비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수신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합의 여유자금인 예치금도 크게 증가하는 등 유동성 관리 역량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이 건전성 등을 제고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 대출 늘었지만 분기 순이익 증가로 BIS 자본비율 개선

국내은행들의 2분기 자본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8%, 14.27%, 15.62% 및 6.53%다. 1분기 말과 비교하면 각각 0.08%포인트(p), 0.01%p, 0.01%p 및 0.04%p 상승했다.

금감원은 “대출이 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됐지만 분기순이익 시현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 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했다.

총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한 씨티·산업·수출입·KB·DGB 등 5개 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했다. 카카오·토스·수협·SC·JB·BNK·우리·기업·하나·신한·농협·케이 등 12곳은 총자본이 소폭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커지면서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본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대적으로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신한銀 中법인, 위챗에 모바일 브랜치 오픈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연동 13억 위챗 고객 대상 접점 확대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가 중국 최대 규모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 Wechat)과 연동된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모바일 브랜치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위챗 메신저와 연동해 금융, 쇼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국내 최대 규모 메신저인 위챗의 이용 고객수는 약 13억명이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이번 위챗 내 모바일 브랜치 오픈을 통해 위챗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접점을 확대해 확대한다.

위챗 사용 고객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않고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의 정기예금·적금 상품가입, 거래내역 조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고객들에게 신한은행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기반고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케이뱅크, 인뱅 최초 車 대출상품 출시

2금융권 자동차 대출 대한 상품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자동차대출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2금융권에서 받은 자동차대출을 대환하는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대출은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별도 서류제출 없이 케이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도는 신차 기준 8000만원, 중고차 기준 5000만원이다. 기존 카드사, 캐피탈사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면, 이를 포함한 대출금액 전액을 대환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고객의 월 납입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년(신차할부 기준)까지 보장한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75%로 2금융권 최저금리와 비교해 1%포인트(p) 이상 낮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의 비대면 혁신을 자동차금융으로 확장했다”며 “번거로운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타면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기간으로 원리금 부담도 덜고 신용점수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K-산업, 세계무대 종횡무진

폭발물제거 로봇·정밀타격 드론 등 첨단 방산솔루션 공개

폴란드 MSPO 2023

유럽 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한화, 계열사 통합 전시관 운영
LIG넥스원, 신궁 등 제품 소개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를 통해 K-방산의 기술력 알리기에 집중한다.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폴란드를 중심으로 향후 유럽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5~8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참가한다. MSPO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폴란드 최대 국제방위산업전시회로, 파리·런던의 전시회에 이은 유럽 내 세 번째 규모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계열사들은 무인 및 육·해·공·우주 분야의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이기 위해 대규모 통



한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MSPO 참가 부스전경.



LIG넥스원 부스 조감도

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통합사 출범과 5월 한화오션의 그룹 편입 이후 공동 참가하는 첫 글로벌 행사다. 전시관 중앙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개발이 진행중인 미래형 국방로봇 무인수색차량에 지대지 유도탄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가 처음 공개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쟁 이후 재건 분야와 향후 유럽의 무기 교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첨단 방산솔루션도 제시한다. 국내 양산을 앞두고 외부에 처음 공개되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종전 이후 인간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럽의 미래를 재건하기 위한 기술이다.

LIG넥스원은 폴란드는 물론 주변국에 첨단기술을 알리기 위해 항공탑재 유도무기 KGGB,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현공·신궁 등 지상 유도무기와 드론 제품을 전시한다.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국

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넥스원이 개발했으며 FA-50 외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 및 운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다. 신궁은 국내에 배치된 단거리 대공 미사일체계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및 소형헬기 등에 대한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휴대용 지대공유도무기다.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은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육군에 납품해 성능을 검

증받았다. 국산화한 고성능 전자광학(EO) 카메라와 적외선(IR) 카메라를 비롯해 레이저 거리 지시기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이번 폴란드 전시회를 통해 LIG넥스원이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알리고 K-방산 선도업체로서 LIG넥스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선 ‘빅3’ 친환경 선박기술 알린다... 정기선·정진택 앞장

〈HD현대 사장〉 〈삼성중공업 사장〉

싱가포르 가스텍 2023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참가
다수 기술인증 예정... MOU 체결도

국내 조선 ‘빅3’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산업 전시회인 가스텍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 알리기에 나선다.

HD현대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가스텍 2023’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가스텍 행사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 750개 기업, 4만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스텍2023’에 마련된 HD현대 부스 조감도



삼성중공업 홍보 전시관.

HD현대는 정기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선사와 선급 등 글로벌 기업을 만나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조선·해운산

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 330㎡ 규모의 전시관에 LNG(액화천연가스)선과 LPG(액화석유가스)선, 재액화장치, 이중연료추진엔

진 등의 모형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 HD현대는 글로벌 선급·기업과 총 16건의 기술인증 획득 및 기술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할 예정이

다. 또 탄소 배출이 없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및 수소 선박의 진일보된 기술력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정진택 사장을 비롯한 영업·기술 임원 20여명이 총출동해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약 216㎡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모델을 중심으로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줄인 그린십 사양이 적용된 LNG운반선과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 등 총 4종의 친환경 선박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최태원, ‘SV 리더스 서밋’ 주도... 사회문제 해결 어벤저스 모인다

(SK그룹 회장)

SOVAC 2023

15일 개최... 민간·공공 참여 확대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 성장’ 주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회적가치(SV) 플랫폼인 ‘소셜 밸류커넥트(SOVAC)’가 올해 5주년을 맞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공공 부문 참여를 크게 늘린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연다.

4일 SOVAC 사무국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축제 ‘SOVAC 2023’이 오는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New Dimension of Connecting)’을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로 개최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해 지난 2019년 출범한 SOVAC은 그동안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생태계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해 교류·소통

하는 장(場)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이번 SOVAC은 최태원 회장 주도로 ‘SV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이 처음으로 열리고, 서울 성동구청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마켓을 운영하는 등 SOVAC의 진화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SOVAC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속 산업 활성화 기회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상품 유통전략 ▲로컬 활성화 방안 등 최근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생태계의 화두를 주제로 강연 및 토의 세션이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포스코인터, 年 9만t 규모 흑연 공급망 확보

아프리카 2개국 공급망 구축 MOU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차전지 원료 조달의 플랫폼 역할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를 방문해 2건의 ‘흑연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광물자원 확보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흑연 확보를 위한 첫 MOU 체결은 지난달 28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몰로(Mol) 흑연광산의 공동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몰로 광산에서 생산되는 인상흑연(연간 3만톤) 또는 구형흑연(연간 1만 5000톤)을 10년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보한 흑연은 그룹내 이차전지 사업회사인 포스코퓨처엠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인상흑연은 천연흑연으로 절연성이 풍부해 전극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흑연을 말하고, 구형흑연은 음극재 제조에 적합한 형태인 구형으로 재가공한 흑연을 의미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에 체결한 2건의 MOU로 연간 약 9만톤의 인상흑연 확보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서빙·방역·배송... 이통사 '로봇시장'서 새 먹거리 찾는다

SKT 보안로봇 분야 시장 활약
KT AI 로봇 등 제품 확대나서
LGU+ 서빙로봇 사업 본격화

‘서빙로봇, 방역로봇, 실내 및 실외배송 로봇...’

이동통신사들은 잇따라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라인업도 다양하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AI 로봇 키트’를 출시하는 등 보안 분야의 로봇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KT는 AI 로봇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서빙로봇 사업을 본격화했다.

4일 국제로봇연맹보고서(IFR)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362억 달러(약 47조 7369억원)에서 2026년 1033억 달러(약 136조 221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오는 2025년에 인공지능(AI) 사업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로봇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KT는 로봇 사업을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 사업으로 정의하고, KT만의 강점인 ‘딜리버리 체계’와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로봇 서비스



KT ‘AI 로봇 플라자’ 체험매장에서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 /KT

프로바이더’로서 서비스로봇 보급 확산에 나서고 있다.

로봇 딜리버리 체계는 고객의 수요에 맞게 로봇과 솔루션을 상품화하고 로봇 도입부터 현장 컨설팅, 사후관리까지 고객을 지원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 로봇 플랫폼은 AI 통합관제, 서비스 지능화, 핵심기술 확장성이 특징이다. AI 통합관제는 수 천대 로봇에서 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 6000만 건 데이터를 분석해 설치부터 운영까지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KT는 AI 로봇 제품 라인업 확대에

도 나서고 있다. 서빙 로봇, 방역 로봇, 실내 배송 로봇 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 로봇 공도주행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다양한 주거·오피스 공간들을 이어주는 실외 배송 로봇 서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공장과 물류센터 내부의 소형 물류 이동을 책임지는 공장용 소형 물류 로봇, 농업 현장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농업용 배송 로봇까지 도메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거대 AI인 ‘믿음’과 결합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AI 로봇 서비스’로 진화시키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화재, 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는 ‘AI 로봇키트’를 내놓는 등 보안·감시 등 영역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SKT는 지난 3월 뉴빌리티 등과 공동으로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사업화를 개시했으며 3월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SKT 관계자는 “SKT는 AI 기술력에서 다른 통신사와 큰 차이가 난다. AI 컴퍼니를 지향하는 우리 회사는 언어와 비전, 데이터 등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해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닷과 같이 음성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부터,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 로봇 시각 정보를 통해 위치를 측정해준다. SKT는 이 같이 다양한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해 단순히 무한 반복하던 로봇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더 똑똑한 일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AI 로봇에서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게 만드는 연결성(Connectivity)을 핵심 BM(비즈니스모델)으로 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손잡고 서비스 로봇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스마트팩토리, 대기환경관리, 약제배송 등 산업현장에서 로봇서비스의 성장 가

능성을 확인한 LG유플러스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서빙로봇 ‘클로이’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 7월 중국서빙로봇인 ‘푸두봇’을 판매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서빙로봇 ‘후두봇’에 LG유플러스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솔루션을 결합해 공급하게 된다.

중국 로봇을 정식 공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 서빙로봇을 도입해 국내 판매할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중국 로봇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LG유플러스에서 중국 로봇을 국내 공급하는 것이 대표 통신사업자로서의 도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로봇 라인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매장과 산업현장 전체에 음영지역 없이 LTE/5G 통신 기반 심리스(Seamless)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대표 로봇전문기업 유진로봇과 물류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빙’에 이어 ‘물류’로 로봇사업 분야 확대에 나섰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MS ‘워드패드’ 28년만에 역사 속으로

MS워드·윈도 메모장 권장
워드패드 효용성 낮아져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Windows)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워드패드’가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MS는 4일공지를 통해 앞으로 ‘docx’ 등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엔 MS 워드를, ‘txt’와 같은 일반 텍스트 문서엔 윈도 메모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워드패드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외신들은 해당 기능의 효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드패드는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MS 워드나 다른 워드 프로세



프랑스 파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모습. /뉴시스

서에 비해 기능이 부족하고 호환성이 떨어졌다. 또한 PDF 포맷이 문서 공유의 대세가 되면서 워드패드의 필요성이 줄었다.

MS는 워드패드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하루 전에 메모장에 자동 저장과 탭

자동 복원 등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워드패드는 1995년 출시한 운영체제 윈도95부터 제공됐다. MS는 2018년 메모장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윈도11에 들어 다중 탭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온 반면 워드패드는 2013년 출시된 윈도8에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워드패드가 제거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MS워드와 메모장을 주로 사용해 워드패드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SDS,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가속

레드햇, IBM과 맞손

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 IBM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SDS는 삼성클라우드 플랫폼(SCP)에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OpenShift)를 제공한다.

또 삼성SDS는 IBM, 레드햇과 공동 영업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BM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삼성클라우드 플랫폼의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를 구성한다.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배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이다.



좌측부터 한국레드햇 김경상 사장, 삼성SDS 구형준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 IBM 루스 선(Ruth Sun) 삼성 파트너십 글로벌 매니징 디렉터. /삼성SDS

이번 협력으로 삼성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오픈시프트를 통해 기업 업무시스템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금융, 공공분야 고객 맞춤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영상 소통 서비스

‘피플’ 인증샷 출시

스마일게이트는 차세대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피플(P.Pool)’이 인증샷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4일 밝혔다.

피플은 지난 7월 27일 오픈베타 이후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이번 인증샷 기능 업데이트로 최대 25명까지 하나의 프레임에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며, 모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U+유모바일, 가족·친구와 무제한 음성통화

‘지정번호 통화 자유’ 서비스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브랜드 ‘U+유모바일’이 지정 회선에 한해 국내 음성 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부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부가서비스의 이름은 ‘지정번호 통화 자유’로 LG U+망을 사용하는 모바일 무선 번호 1~3개 회선을 지정하여 무제한 국내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 1개 회선을 지정할 경우 이용 요금은 월 1300원, 2개 회선은 월 1900

원, 3개 회선은 월 2500원이다.

U+유모바일의 ‘지정번호 통화 자유’ 상품은 고객들의 통신 사용 패턴에 따라 알뜰폰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보통 음성 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이 제한된 요금제보다 비싸다. 하지만 평소 음성 통화량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고객이라면 음성 통화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선택한 후 지정번호 통화 자유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채윤정 기자

LS, 동해공장 교량 ‘덕봉교’ 명명

첫 해저 케이블 준공 업적

구자열 LS이사회 의장이 LS전선 동해사업장을 지키게 됐다.

LS는 강원도 LS전선 동해사업장 신축 교량을 ‘덕봉교’로 이름지었다고 4일 밝혔다. ‘덕봉’(德峰)은 구자열 의장의 호로, ‘덕’은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봉’은 최고를 의미한다고 LS는 설명했다.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며 은

혜를 베푸는 것과 최고라는 의미를 가졌다.

구 의장이 LS전선 회장을 지냈던 2009년에 국내 최초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을 준공하며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했던 공적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3 QS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TOP 1%

2023 Leiden 세계대학평가
국내 1위

2023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8위

세종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3. 9. 12.(화) ~ 9. 15(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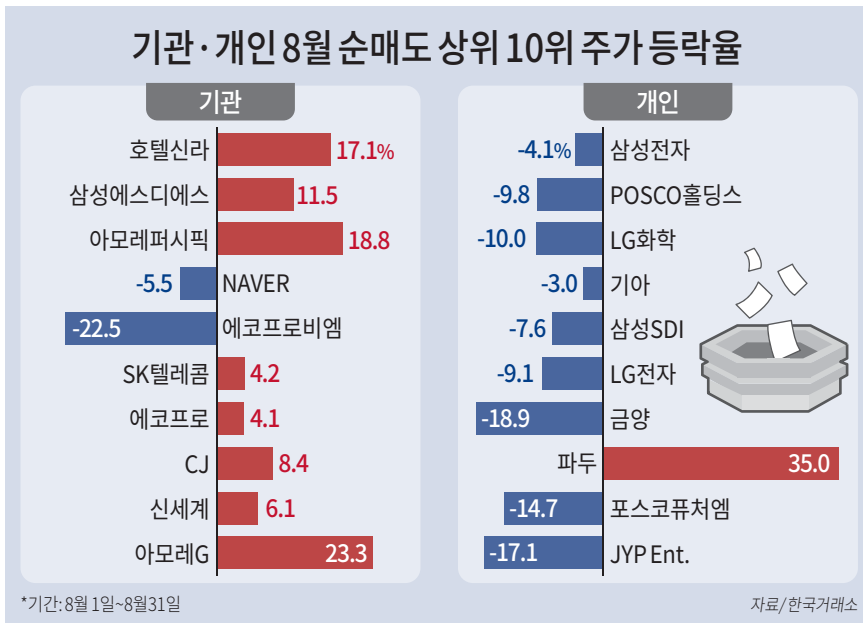
모집전형 학생부교과 : 지역균형, 농어촌학생, 항공시스템공학
학생부종합 : 세종창의인재(면접형, 서류형), 기회균형,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국방시스템공학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자연계열
실기우수자 : 음악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예체능특기자 : 체육학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세종대학교

‘반도체 투자’ 재미 울고 ‘유커 집중’ 기관 웃었다... 주가 희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
상위 10개 중 9개 하락에 손해
기관, 다수 종목서 수익 올라가



지난달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기관은 대부분은 순매도하면서 정반대의 주식 투자 결과를 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주가는 대부분 하락한 반면, 기관은 다수의 종목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삼성전자(-4.1%) ▲포스코홀딩스(-9.8%) ▲엘지화학(-10.0%) ▲기아(-3.0%) ▲삼성SDI(-7.6%) ▲엘지전자(-9.1%) ▲금양(-18.9%) ▲포스코퓨처엠(-14.7%)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17.7%) 등에 가장 많이 투자했지만 수익을 올리는 못했다. 반면, 기관은 투자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익을 봤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다. 이외에도 포스코홀딩스, 기아, 파두, 엘지전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등을 기관은 팔고, 개인은 순매수하며 반대의 투자 태도를 보였다. 개인은 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골고루 투자했고, 기관은 유커 테마주에 집중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호텔신라(17.1%) ▲아모레퍼시픽(18.8%) ▲신세계(6.1%) ▲아모레G

(23.3%) ▲씨제이(8.4%) ▲삼성에스디에스(11.5%)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커 귀환을 노린 화장품·면세점 관련 주의 지분이 높았으며, 실제로 수익률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가 6년 만에 결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면세점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며 “면세점 업체들은 파이공 중심의 높은 할인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수익성 개선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재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는 최근 주가 반전 기미를 보이며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1일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 4세대 제품인 HBM3를 엔디비아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심이 자극된 것이다. 이날 삼성전자의 종가는 7만1000원으로, 장중 5%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7만전자’에 입성했다. ‘7만전자’

복귀는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에 HBM3 납품 소식과 업계 최대 용량 D램 개발 등의 호재가 반영됐다”며 “외국인 또한 삼성전자에 매수세 집중되며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9만전자’에 대한 장미빛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는 만큼 재미들의 삼성전자 투자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올해 엔비디아, AMD를 HBM3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HBM3 고객사가 최대 10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직전 고점은 2021년 1월 11일에 달성했던 9만1000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시 활성화... 韓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

“세수 부족에 쉽지 않아”

최근 중국이 침체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0.1%인 증권거래세를 50% 인하하자,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8일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기존 0.1%에서 0.05%로 50% 인하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으로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가 적용된 이후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등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도 증권거래 인지세 인하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홍콩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자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지난 9일 홍콩 정부에 증권거래 인지세를 없애 달라는 문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일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들먹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종목 주주분석’ 서비스 선포

평균수익률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미래에셋증권은 국내·해외 주식에 대한 ‘종목 주주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종목 주주분석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목별 보유 평균단가, 평균수익률 및 최근 투자자의 성향 등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종목별 고객 데이터를 보유, 매수, 매도 3가지 관점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보유자 분석에서는 종목을 보유한 고객들의 평균 단가 분포와 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자 분석에서는 해당 종목을 새롭게 투자한 고객들 중 장기투자 성향의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추가 매수한 고객들이 몰타기(종목 손실 중 추가매수)·볼타기(종목 수익 중 추가매수)한 비율도 알 수 있다. 매도자 분석에서는 최근 매도한 투자자들의 평균수익률과 손실 투자자 비율 정보를 확인해 볼 수



/미래에셋증권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 A 종목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평균 21.05%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으며, 전체 고객의 약 90%가 수익을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해당 종목을 신규 매수한 투자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성향의 고객들이 단기 투자하는 성향의 고객들보다 7배 이상 많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대우건설, 서울·부산 등 후분양단지 공급

하반기 후분양 아파트 4곳
공정률 60~80% 이상일 때 분양
아파트 실물 확인 가능해 인기

최근 ‘철근 누락’ 논란으로 아파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후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을 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많지 않다. 그만큼 자금력이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만 후분양 아파트를 4곳이나 내놓는 업체가 있다. 대우건설이다. 대우건설은 서울과 부산, 경기 광명, 인천 송도 등에서 후분양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59~114㎡,

〈대우건설 하반기 후분양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세대수 (일반분양)	입주
부산 남구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씨밋	59~114	1384 (391)	23년 12월
서울 동적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59~84	771	24년 2월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59~99	1,500	24년 9월

1384가구 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푸르지오 최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씨밋’이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적용되는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59~84㎡ 771가구를 선보인다. 특별공급 370가구, 일반공급 401가구다. 발코니 확장과 시

스템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는 내년 2월이다.

인천 서구에서는 하반기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59~99㎡ 1500가구를 분양한다. 광명에서는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 39~102㎡, 3344가구 중 30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GS건설, 가전·공간 복합상품 첫 선

단우드와 LG전자 협업

GS건설의 유럽 친환경 모듈러 전문 자회사 ‘단우드’와 LG전자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상품인 ‘스마트코

티지’가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 중인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23’에서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상품인 스마트코티지

를 선보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5월부터 GS건설과 LG전자가 협력해 개발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상품이다. 스마트코티지는 국내 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선보인 10평 남짓의 소형주택이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김대환 기자

이달 분양 예정 물량 ‘3만2345’ 가구

전년 동월 대비 52% 가량 많아

9월 중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234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2만1337가구) 대비 52%가량 많은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등 제외)은 42개 단지, 총 3만2345가구로 조사됐다. 전월(2만9335가구)과 비교하면 10%(3010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920가구, 지방은 1만4425가구가 공급된다.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11%(1793가구), 9%(1217가구)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9122가구로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869가구 ▲인천 2929가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단지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아이파크 자이’가 총 가구수 4321가구(분양 1641가구)로 가장 규모가 컸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 e편한세상’이 총 세대수 1227가구(분양 1227가구)로 분양되는 단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지방에서는 ▲부산 5828가구 ▲전남 2615가구 ▲광주 1872가구 ▲울산 1277가구 ▲강원 1022가구 ▲충남 791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376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김대환 기자 kdh@

중소 중대재해법 2년 연장... 원격진료 개념 명확화 등 추진

중기부, 중소기업 150대 킬러규제 선정
경제규제 혁신 TF 통해 개선 나서
산업화·신기술 부문 43건 '최다'

전통주 범위 확대, 숙박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분야 킬러규제로 꼽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150대 킬러 규제'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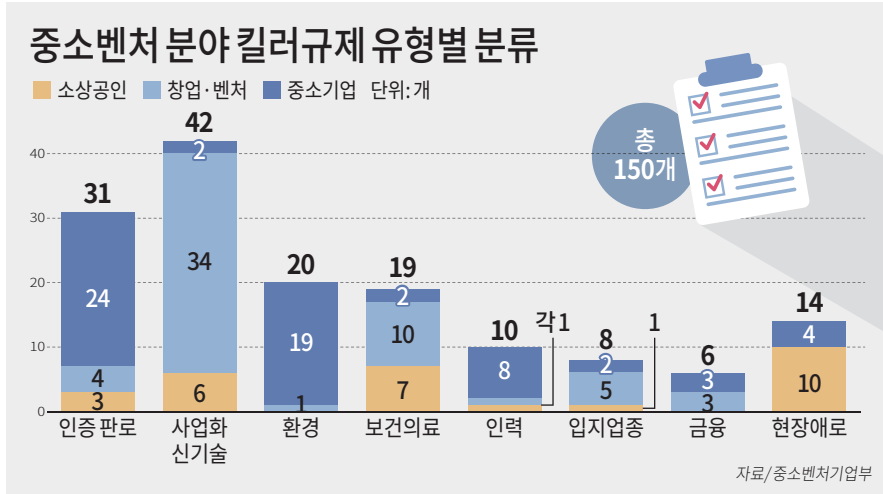
이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혁신태스크포스(TF)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았다.

중기부는 또 '킬러규제TF'를 통해 3차례의 '규제뽀개기'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가 우선 선정한 150대 킬러 규제에는 사업화·신기술 부문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인증·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의료(19건) 등의 순이다. 건의 단체별 대상은 중소기업이 64건, 창업·벤처가 58건, 소상공인이 28건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하 ▲색깔만 달라져도 새로 받아야 하는 KC인증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기준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개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금액 적정성 검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확대 또는 개편 ▲나후 접경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완화는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최소 2년 더 연장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내용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도 업종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지원하던 것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KC인증을 제작과정 및 원자재가 같을 때 색깔이 달라도 별도 시험없이 같은 모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에 있는 한 유아용 의류제조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5가지 색상의 유아용 내복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이 같은데도 색깔이 달라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서 "어린이용품

에 대한 안정성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공정이면 색깔이 달라도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벤처·창업기업 분야에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총액 제한 완화 ▲의료법상 원격진료 범위 및 개념 명확화 ▲벤처스타트업 현실에 맞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완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활성화 ▲AI 활용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동업금지 규정 완화 ▲드론 안전성 인증의 형식승인 허용 및 기관 확대 ▲1인 창조기업 업종제한 규제 완화 ▲벤처기업직접시설 입주기업 자격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원격진료나 I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은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벤처·스타트업 분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잇는 필수 요소인 만큼 건전한 시장경쟁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득권 세력 부담 규제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플랫폼 스타트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률서비스 역시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법률시장에 접목돼 소비자들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식육육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수제맥주 제조 재료 허용품목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 숙박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 제한 업종 완화 ▲통신판매업 폐업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폐업 신고기한 연장 등이 '킬러규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전통주는 해당 지역 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가 심각한 상태다. 해당 지역 외에서 나오는 원료를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접지 외의 원료를 일부 사용한 경우도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청년 창업기업에 강원도 이전비용 지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023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4일 중진공에 따르면 오는 9월18일까지 모집하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것으로, 청년창업기업이 강원지역으로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진공과 강원랜드, 지방시대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관광해업공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집대상을 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뿐만 아니라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수혜기업까지 확대했다.

공개경쟁 선발방식으로 서류 심사와 본선 심사, 그리고 결선 심사를 거쳐 지원기업 3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본선진출 기업은 지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이전할 부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고, 발표심사에 대비한 코칭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융자·투자연계 등(중진공) ▲상생 프로그램 연계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

업투자지원 우대(한국관광해업공단)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지자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사, 공장 중 1개 이상을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중 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중진공 조찬고 인력성장본부장은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손잡고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중진공은 우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동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유클리드소프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선정

기보, 가치금액 내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쓰레기 무단투기 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유클리드소프트를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으로 선정했다.

4일 기보에 따르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가치금액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플러스보증' 상품을 최근 출시한 바 있다.

출시 후 관련 보증 지원 1호 기업으로 뽑힌 유클리드소프트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CCTV에서 확보한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축적함으로써 행동패턴을 통해 무단투기 외에 다양한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보안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보는 신청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 ▲기술 및 데이터의 수준 ▲데이터 기술의 파급성 ▲데이터



부산에 있는 기보 본사.

활용산업 시장규모 ▲데이터 기술의 경쟁력 ▲사업타당성 및 수익전망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유클리드소프트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평가보증으로는 추가자금조달이 어려웠지만 데이터에 대한 기술사업화 기여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치평가방법론이 적용됨으로써 최종 데이터가치 평가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

창업 3년→7년 소상공인 기준 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4일 소진공에 따르면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4월 출시했다. 지금은 연 3%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소진공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 범위 등을 넓혔다.

먼저, 재창업 유형 중 '초기단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원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베이지색 '컬러 인덕션' 출시

SK매직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블랙과 화이트 글라스에 이어 베이지 색상의 '보더리스 라이트 더 컬러 인덕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지문, 얼룩, 각종 스크래치 등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프리미엄 글라스를 적용해 항상 새 제품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화력은 3400W로 3구 모두 국내 최대 화력을 제공한다.

고성능 IH코일이 빠르고 강력하게 열을 전달하며 초고화력을 제공하는 파워부스트(Power Booster) 기능이 있어 많은 양의 요리도 단시간에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창진원, 창업기업 제품 판로지원 나서

'공공구매 네트워킹 데이' 개최

창업진흥원이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4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공공구매 네트워킹 데이는 창업기업에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와 공공기관과의 소통의 기회를, 공공기관에게는 수요에 맞는 창업기업 제품을 발

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연결을 위해 진행하던 기존의 구매담당회를 확대한 것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 준비지원을 위한 '조달 실무교육', '조달역량 강화'를 위한 '1대1 멘토링',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간담회까지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복원'

훼손된 백두대간 사유지 사들여 서식지 회복 등 생태복원 나선다

개발행위 제한해 환경가치 보존 체계적 복원 미흡 지적 제기돼 "탄소흡수·재해예방 기여할 것"



환경부 전경. /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복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자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GBF는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23개 실천 목표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

정하고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한다. 또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양의 수원 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와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가 평균연령 80대 중반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칠곡할매'들이 출연하는 '니들이 라떼를 알아?' 뮤직비디오를 공식 유튜브에 공개했다. /고용부

고용부, '칠곡할매' 조직문화 개선 영상 게재

유튜브 통해 세대 간 편가르기 중재

고용노동부가 4일 유튜브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부 공식유튜브에는 올해 초 대통령 연하장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는 '래퍼' 칠곡할매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젊은 꼰대' '늙은 꼰대' 등의 속어 사용과 세대 간 편가르기 등을 꾸짖는다.

평균연령 80대 중반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경북 칠곡에 거주하고 있다. 칠곡할매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니들이 라떼를 알아?'라는 랩 형태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에는 '내 나이 밑으론 모두 귀엽다' '내가 마음먹고 라떼 품쯤 잡아봐?'

등의 엄포가 등장한다. 이어 직장인 모두가 화합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나온다. 또 'SNL코리아'에 출연 중인 김민교와 지예은이 영상에 함께 출연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9월4일치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공개됐다. 고용부는 이 채널을 통해 친해지고 싶은 직장 동료에게 댓글을 남기면 선정을 통해 커피ギフト콘(50명 선정)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은 "상생과 화합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며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며 "칠곡할매들의 메시지처럼 세대 간 편 가르지 않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입소식

산업인력공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삼성·현대 훈련장 등 오가며 강화훈련 38개 직종 선수·국제지도위원 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내년 9월10~15일 기간에 개최되며 75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의 국가대

표 선수가 출전한다.

입소식에는 38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들을 지도할 국제지도위원 38명이 참가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예선전(2021년, 2022년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디지털건축과 적층제조, 산업4.0, 로봇시스템통합 등 12개 직종은 연말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에 합류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과 삼성전자·삼성전기(수원), 삼성중공업(거제), HD현

대중공업(울산) 훈련장 등을 오가며 훈련에 전념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17년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참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7억 2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올해 초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평가 시스템 구축 ▲국제대회용 신규 장비 도입 ▲해외 전지 훈련 ▲국가대표 선수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권역별 설명 진행

농식품부, 시·도 담당자 등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돼 내년 8월17일 시행예정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5일 충북 청주(오성&세종 컨퍼런스)에서 1차 전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경기·강원·충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11일에는 대전 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전북·전남권, 10월12일 부산(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북·경

남·제주권 설명회를 각각 연다.

농식품부는 "농촌이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 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허성근 기자 skc8472@

국립생태원 개원 10주년... 멸종위기종 기획전 열어

충남 서천 본원 에코리움서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국립생태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9개월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본원 에코리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전시 연출과 체험형 과정으로 멸종위기종의 실태와 보호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관람객들은 멸종위기종 초형물 5점(통길등창코원숭이, 사막여우, 해달, 인도들소, 수리부엉이)과 그래픽 초상화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생

태원은 "자연스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인식을 갖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실 입구에 대형 화면기기를 전시해 멸종위기종과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500여 종의 동식물들을 담아낸 고화질 사진을 보고 화면을 만지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수는 수달 등 총 282종에 달한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알아가고 보호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항공, 전라권 항공일자리 릴레이 설명회

광주대학교서 개최... 14개사 참여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6일 광주대학교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전라권 항공일자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공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경상권(신라

대학교)와 충청권(한서대학교)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 등 3개 기업과 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제주항공·에어서울 등 항공사, 유니에스·스위스포츠키오리아 등 지상직·정비관련 기업, 인스파이어·홀리데이인광주·여수유담마리나·라마다플라자광주 등 호텔 레저 분야 기업까지 총 14개사가 참여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골드홈에서 시공하는 [여주 강천 돈키호테마을]



홈쇼핑 런칭!

모두 포함 시공

땅 정원 부대공사 집

주택 + 토지 + 정원 + 부대공사 = **3억원대**

여주 강천 돈키호테마을 시공·분양 1800-7677

골드홈 시공/분양, 무료상담 1800-7677

주방가구 3m, 신발장 1.5m, 전기쿡탑, 정원, 주차장, CCTV 포함시공
 별도공사 : 불박이장, 에어컨, 전자제품, 쇼파가구, 토지, 건물 취득세, 개발부담금, 파고라

검색 골드홈

YouTube 골드홈TV

☎ 1800-7677

부산시, 청년·사회초년생 찾아가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창업·소송 관련 법률 교육도 병행
교육 희망 근로사업장·대학교 등
전문강사와 일정·시간 협의 진행

부산시는 오는 10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사회초년생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자칫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해 청년·사회초년생 등 전 시민이 교육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내 대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다.

교육은 '전세사기 예방법, 대처방법 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주제로 ▲ 전세사기 유형 ▲ 피해 예방법 ▲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룬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다. 해당 분야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해 전문적인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의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 전문 강사도 섭외해 법 지식, 창업 관련 법률 상식, 소송 정보 등 생활 법률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생활전선에 있는

근로자, 취업 준비로 바쁜 예비사회인·대학생을 위해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근로자와 예비사회인·대학생 등의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예비

사회인,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장소 및 교육 인원을 확보해 4일부터 22일까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시간대는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강사와 협의해 진행된다.

전문 강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강사로 섭외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교육 진행 후 교육 평가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시 청년들이 전세계약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숙지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청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문경시

문경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문경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문경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역대 관장 20여 명, 문화예술 종사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직문화예술회관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개관 30주년 맞이 작품을 기증해주신 임무상 화백님, 30년간의 주요 기록물 DB구축에 힘써주신 박희구님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문경(경북)=장영우 기자

순천시

SRT 전라선 개통 환영행사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일 SRT 전라선(순천,여수-수서)의 개통을 축하하고 첫 방문객(수서발)을 환영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전라선 SRT는 순천-수서간 1일 2회 왕복으로 하루 총 4회 운영한다. 전라선은 KTX만 30회 운영했으나 이번 SRT까지 포함해 총 34회로 늘어났다.

그동안 순천에서 수서역을 가기 위해서는 익산역에서 환승을 하거나 서울역에서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SRT 전라선 개통으로 환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8종 추가

광양시가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8종을 추가로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광양사랑상품권 ▲백운산자연휴양림 숙박 할인권·이용권과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로쇠 ▲간매실 ▲매화수화장품 ▲매실청 ▲매실장아찌 등이다.

모바일 광양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상품으로 1만원 단위로 구입 가능하며, 기부자들은 모바일 앱(chak)에서 회원가입과 상품권 발급을 완료해야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부산시

해외 바이어에 홍보·투어 진행

부산관광공사는 5일부터 8일까지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부산 일원에서 해외 바이어 20여명을 대상으로 'Meet In Busan'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 홍보 설명회와 2일간의 팸투어로 진행되며, 특히 팬데믹으로 부진했던 MICE 인센티브 행사 유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주요 바이어를 선별해 부산으로 초청했다. 해운대국제회의복합지구와 2030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BP EX 일원을 둘러보게 된다.

/부산=김영찬 기자



여수시가 에이치앤지케미칼㈜와 7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여수시, 720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연 30만톤 EVA 생산시설 준공 목표

에이치앤지케미칼㈜와 맞손
1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에이치앤지케미칼㈜와 7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에이치앤지케미칼㈜는 국가산단 내 연간 30만 톤 규모의 EVA 생산 시설 준공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7200억 원을 투입하고, 시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이치앤지케미칼㈜는 한화솔루션과 GS에너지의 합작사로, 피복이나 전

선 등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용 시트 핵심소재인 EVA를 생산하는 업체다. 현재, 전 세계 EVA 제품 수요는 연간 460만 톤 이상으로 매년 9%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번 생산시설 투자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1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에이치앤지케미칼㈜ 임상일 대표는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울산시,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신설 유치

케이디탱크터미널, 375억 투자

울산시가 케이디탱크터미널로부터 375억 원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신설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울산시는 4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장선우 케이디탱크터미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케이디탱크터미널은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신설하게 된다. 총 375억 원을 투자해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현 사업장 유휴부지(1만 4627㎡)에 연간 9만 톤 생산규모로 9월 중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남도한바퀴' 가을 특별상품 운영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연계

전라남도는 지역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한 남도한바퀴 가을 특별상품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상품은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는 물론 섬, 바다, 단풍명소 등을 포함했다. 또 미식의 계절 가을을 맞아 남도의 맛을 더해 오감만족 전남을 즐기도록 꾸몄다.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해 해남-진도 수목여행, 목포 수목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해남-진도 수목여행' 코스는 비엔날레 특별전시관인 진도 운림산방을 거쳐 진돗개 테마파크, 해남 우수영국민관광지를 둘러보고 민속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일요일 '목포 수목여행' 코스는 비

엔날레주전시관인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정통 남도 수목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목포의 대표 관광지인 고하도 전망대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해 다도해의 풍광도 만끽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전남도립미술관을 경유하는 순천·광양 상품도 올 가을 꼭 이용해볼만한 코스다.

특히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10월 29일까지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 미술 특별전: 조우' 전시가 진행되고 (故)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증작인 한국 근현대 대표 미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전남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다. 위탁업체인 금호익스프레스(주)와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을 운영,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양수혜 기자 ysn6313@

청송군, 이색숙박시설 공모 최종 선정

총 사업비 100억 확보

청송군은 경북도 주관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100억(도비50%, 군비50%)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K-관광선도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여는 경상북도 2030 관광비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숙박시설 자체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해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주왕산면 하리리 일원 청송양원(구.주왕산초등학교)으로 2009.12월 청송군이 매입하여 현재 예비군면대, 산불진화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가족형호텔 15실(1,840㎡), 청송사과 글램핑장 15개소(630㎡), 바비큐장 15개소(240㎡), 트리하우스 4개소(100㎡), 라비에셀 카페&식당 256㎡ 등 주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송(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지난 겨울에 잡아 괜찮아”... 옥돔 등 수산물 선물세트 ‘인기’

日 오염수 방류에 비축분 풀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수산물 선물 판매 두자릿 수 상승

‘김영란법’ 개정, 선물가격 상향도 수산물 매출에 좋은영향 미친 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만 오히려 수산물 선물세트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선물세트 인기있는 옥돔, 조기, 굴비 등의 생선이 모두 지난 겨울 중 포획된 만큼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3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통업계 전반에서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뛰고 있다. 지난해는 9월 둘째 주가 추석이어서 8월 선물세트 매출과 구매비중이 컸는데, 올해는 이를 넘어선 수준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뛰었다. 냉동 옥돔, 굴비, 갈치 등 간편 수산물 매출(50%)이 가장 많이 늘었고, 김과 같은 견해산물(30%)도 잘 나갔다.



신세계 본점 지하 1층 추석 수산물 선물세트 코너에서 상품을 살펴보는 고객의 모습. 신세계백화점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격이 상향됨에 따라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잡힌 제주 갈치·영광굴비 등 국내산 2만여 선물세트를 확보해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내놓았다. /신세계

다른 대형마트들도 같은 기간 비슷한 결과가 산출됐다. 이마트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 역시 11%가량 증가했다. 홈플러스도 올해 예약 판매 개시일부터 22일간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예약 판매 기간 22일 대비 49% 늘었다.

올해 명절 선물세트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상품의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

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맞서 유통업계가 올해 봄 포획 물량을 활용한 선물세트를 대거 늘리면서 도리어 매출이 뛰었다. 현재 일부 기업은 내년 설 선물세트 물량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급속 냉각 등 다양한 저장보관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출이 크

게 된 수산물 선물세트는 대부분 겨울철 포획 어류”라며 옥돔은 11월부터 5월, 참조기는 9월부터 4월, 굴비는 9월부터 2월 포획하는 어류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한 8월은 이들의 금어기다.

그는 “올해 판매 중인 수산물 추석 선물세트는 모두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제철에 잡은 상품들이지만 더더욱 안전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검사 후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상향된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또한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에 영향을 줬다. 지난 2일 정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명절 선물세트 농축수산물 가격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고급 상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진작 되면서 과일 선물세트 대비 상대적으로 고급 상품이 많은 수산물 상품 매출이 뛰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김영란법 개정이 논의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지난

해 추석 전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했다. 특히 20만~3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 증가 폭이 71.3%로 가장 컸으며 30만원대 이상 선물 세트 매출은 51.3%나 늘었고, 10만~20만원대도 28.1%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추석 성수품인 과일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비축품으로 마련된 선물세트 매출은 준수하지만, 현재 도매시장 내 시세가 고공행진 중이어서 추석을 앞두고는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

한편, 대표 명절 성수품인 과일은 선물세트와 헷과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축 물량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수산물 자체를 꺼리는 고객의 선택을 받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헷과일 시세는 올 여름 작황 불량 탓에 도매가격부터 고공행진 중이어서 명절 중 소비량은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8월 10일~31일 과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추석 사전 예약 동기간 대비 48% 뛰었다. 반면 헷과일 도매시세는 고공행진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여행관련 온라인 쇼핑액 2조 ‘최고치 경신’

통계청, 7월 전체 거래액 18.9조
음식서비스 2.4조로 3개월째 증가

지난 7월 여행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조 원대로 치솟으며 기존 최고치를 불과 2개월 만에 경신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9049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9.1%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15.9%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여행·교통상품 거래액이 2조 185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2조1030억 원)를 넘어섰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무려 31.4% 증가해 음·식료품(15.7%) 등 다른 분야 거래액을 능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후 첫 번째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여행 관련 예약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음식서비스는 2조3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는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화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10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배달수요가 다시 늘면서 5~7월 기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스포츠·레저용품(-5.9%) 등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5719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 5301억 원, 7월

4972억 원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이 관계자는 “호우 등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배달서비스 관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체가 아닌 모바일거래로 한정했을 때 거래액은 스포츠·레저용품(-7.5%) 등에서 감소했고, 여행·교통서비스(25.1%), 음·식료품(13.5%), 화장품(16.9%) 등에서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오비맥주 ‘주류×패션’ 패션쇼·전시회 연다

18일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오비맥주는 오는 18일 동대문 DDP 패션쇼 5층에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쇼와 전시회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서울패션허브 배움뜰, 한국패션디자인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이란 제목으로 주류와 패션 산업간 이색적인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패션 전공 대학생과 서울패션허브,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소속 디자이너, 작가들은 맥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포장 패키지, 폐기물 등을 업사이클링해 패션 아이템과 패션아트로 제작했다. 총 93점의 결과물을 이번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패션쇼와 전시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맥아포대로 만든 블루종 점퍼와 점프수트, 맥주 캔뚜껑으로 만든 가방과 캔맥주 포장 종이로 만든 탱크톱, 맥주박 염색천으로 제작한 의

상 등 실용적인 패션부터 예술적 디자인까지 다양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동대문 DDP 패션쇼 5층에서 열리는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전시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패션쇼는 5시에 시작한다. 패션쇼가 끝나면 ‘친환경 하이브리드 셔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한국패션디자인학회와 공모전을 열고 맥주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오비맥주 브랜드 상품을 모티브로 구현한 친환경 셔츠를 모집했다. 총 150점의 접수작 중 31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패션쇼와 전시회로 공개한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전문 패션 모델은 물론 오비맥주 직원모델도 직접 업사이클링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누리며 끼를 뽐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프레시웨이 ‘식봄’서 식재료 기획전

11일까지 ‘신메뉴 레시피 재료 추천’

CJ프레시웨이는 오는 11일까지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에서 ‘신메뉴 레시피 재료 추천’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외식 사업자의 신메뉴 개발과 다양한 메뉴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 사업자는 기획전을 통해 CJ프레시웨이가 추천하는 메뉴의 레시피와 조리법에 필요한 식재료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메뉴는 맛과 조리 편의성을 고려해 CJ프레시웨이 외식 전문 셰프진이 직접 개발했다.

첫 기획전의 메인 메뉴는 비전문가도 빠르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튀김’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세계 튀김 요리’를 콘셉트로 정하고, 태국, 영국, 미국 대표 요리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메뉴 3가지를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컬리 블랙핑크 제니 화보 공개

컬리가 ‘뷰티컬리’ 공식모델 블랙핑크 제니의 F/W 화보를 공개하고 오는 7일부터 일주일간 ‘뷰티컬리 페스타’를 진행한다. 제니는 이번 화보에서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베이지색 누디 계열의 메이크업을 소화했다. 깔끔한 느낌의 흰 셔츠로 포근한 감성을 표현하여 제니만의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했다.

뷰티컬리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뷰티컬리 페스타’의 티징 페이지도 미리 공개했다. /김서현 기자

현대백 판교점에 ‘메디큐브’ 매장 오픈

에이피알, 브랜드 첫 상설매장

에이피알이 지난달 22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메디큐브’ 상설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브랜드 최초 오프라인 상설 매장이자

오프라인 매장은 코스메틱 제품을 비롯해 2021년 론칭 이래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뷰티 디바이스 제품까지 모

두 취급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유재석 화장품’으로 유명한 제로 라인과 답라인, 콜라겐 라인 등 코스메틱 인기 제품과 ‘더마E MS’, ‘유세라 답샷’, ‘ATS에어샷’, ‘부스터힐러’, ‘아이샷’, ‘바디샷’ 등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 제품을 판매한다. 특히 지난해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관심을 모았던 ‘프립로즈 핑크’ 컬러 버전 뷰티 디바이스도 특별히 준비됐다.

/김서현 기자

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美·호주 등 글로벌 영토 확장

(베그젤마, 허주마 등)

**‘베그젤마’ 호주 판매 허가 획득
항암 항체치료제 포트폴리오 구축
美 등 주요국 커버리지 확대 계획**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암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주마에 이어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용 등에 쓰이는 베그젤마가 합세하며 항암 치료제 트리오를 완성했다.

셀트리온은 4일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만 여섯 번째 바이오시밀러 허가다.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교모세포종 등 호주서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로 오세아니아 내 셀트리온의 상업화 제품은 6개로 늘어났다. 셀트리온은 호주에서 2015년부터 자가

가에서도 베그젤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베그젤마를 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상위 5개 보험사(가입자수 기준) 중 한 곳을 포함한 10여 곳의 사보험사 처방집에 베그젤마 등재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공보험을 포함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0%를 커버하는데 성공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여러 보험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까지 60% 이상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향후 2~3년간 베그젤마를 공급하게 됐다. 특히 트룩시마와 허주마와 같은 항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유럽에서 점유율 선두권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처방 확대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허가를 획득한 호주를 포함하면 베그젤마의 판매가 허가된 국가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한국 등 총 39개국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지난 1일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 아트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대대동맥혈관병원 개원... “세계 1등 목표”

“대동맥 치료 전 과정 빈틈없이 케어”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지난 1일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 아트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차원에서는 최초로 대동맥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세계 최고의 대동맥혈관병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지난 6월 19일 진료를 시작한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불과 2개월 만에 대동맥 수술 100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최단기간 기록으로 산술적으로 연간 대동맥 관련 수술이 600건에서 1000여 건까지 가능하다.

대동맥질환 환자 전원 문의의 시 의료

진 및 행정파트까지 문자가 전송돼 환자 도착 전에 수술 준비를 마치는 ‘EX PRESS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장으로 이동이 가능해 초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동맥 치료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제공하고자 대동맥 전문병원이 탄생했다”며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의 3분의 1을 소화해내는 병원이자 압도적 실력과 압도적 시설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압도적 1등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HK이노엔, ‘케이캡’ 싱가포르 출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싱가포르서 출시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의료진에 특장점·처방 경험 등 소개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싱가포르에 출시됐다. 이를 기념해 국내 및 해외 소화기 석학이 연자로 나서 싱가포르 의료진에게 케이캡의 특장점과 실제 처방 경험을 소개했다.

HK이노엔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출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싱가포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지 파트너사인 UITC가 주관했다. 심포지엄에

는 각 나라의 소화기 권위자인 미국 가왈리 교수(워싱턴의대 반스 주이시 병원 소화기내과)와 한국의 정훈용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가 연자로 나서 대표적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의 최신 지견을 나눴다.

주요 임상시험을 토대로 케이캡의 특장점을 강연한 워싱턴의대 반스 주이시 병원의 가왈리 교수는 케이캡이 같은 P-CAB 계열의 다른 성분 약물보다 효과 발현 시간이 빠르고 간독성 부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점을 강조하며 케이캡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주목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

수는 한국에서의 케이캡 처방 경험을 발표하며 PPI 계열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케이캡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해 싱가포르 의료진의 관심을 받았다.

케이캡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2월에 허가를 받았고, 제품명은 한국과 동일하다. HK이노엔은 현지 파트너사인 UITC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UITC는 현지 영업 및 마케팅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외 케이캡이 기술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한 해외 국가는 총 35개 국가다. 이 중 현지 출시를 마친 해외 국가는 중국, 몽골,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이다.

/이세경 기자

KGC인삼소 “올 추석엔 힘이되는 선물 챙기세요”

정관장 제품 등 할인·추가 증정

KGC인삼공사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올 추석엔 힘이되는 선물’ 프로모션을 9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6일제 근무 등으로 고생했던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콘셉트로 정관장 홍삼의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관 응집억제를 통한 ‘혈행개선’, ‘항산화’ 등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힘을 선물로 전한다는 계획이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19종의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해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탄’, ‘화애락’, ‘홍천옹’, ‘천녹’, ‘황진단’, ‘홍이장균’, ‘아이패스’ 등의 인기제품에 대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정관장 멤버스 회원의 이용 혜택 범위를 강화해 ‘천녹’,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화애락 터닝미’, ‘홍삼톤골드’,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 등의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추가적인 가격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정관장 멤버스 신규가입 고객에게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정관장 활삼28(2병)’을 추가로 증정하고 전 멤버스 회원은 등급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농심 ‘라면왕김통개사발’ 출시

농심의 ‘라면왕김통개사발’을 컵라면으로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지난해 8월 출시한 라면왕김통개의 꾸준한 인기로 힘입어 컵라면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출시 한 달 만에 500만 개가 판매되는 등 뜨거운 초반 열풍을 일으킨 라면왕김통개는 1년간 누적 매출액 200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라면왕김통개사발(사진)은 풍성한 구운 김 후레이크와 볶음 참깨, 고추기름 조미유 등 라면왕김통개의 맛을 그대로 컵라면에 담은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식신, 기술기업특례상장 사전 평가 통과

‘식신e식권’ 등 기술력·사업성 인정

모바일 식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기술 특례상장을 위한 사전 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한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 2곳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 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식신은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신e식권’ 서비스와 맛집 정보 서비스 ‘식신’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기술

평가에서는 AI 지능형 결제 기술, 복합 단말 기술, FS 솔루션, AI 학습 및 분석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생성형 AI 기술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기술의 독창성과 확장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신은 이번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의 협의를 거쳐 올 4분기 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식신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푸드테크 업계 최초로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푸드테크 대표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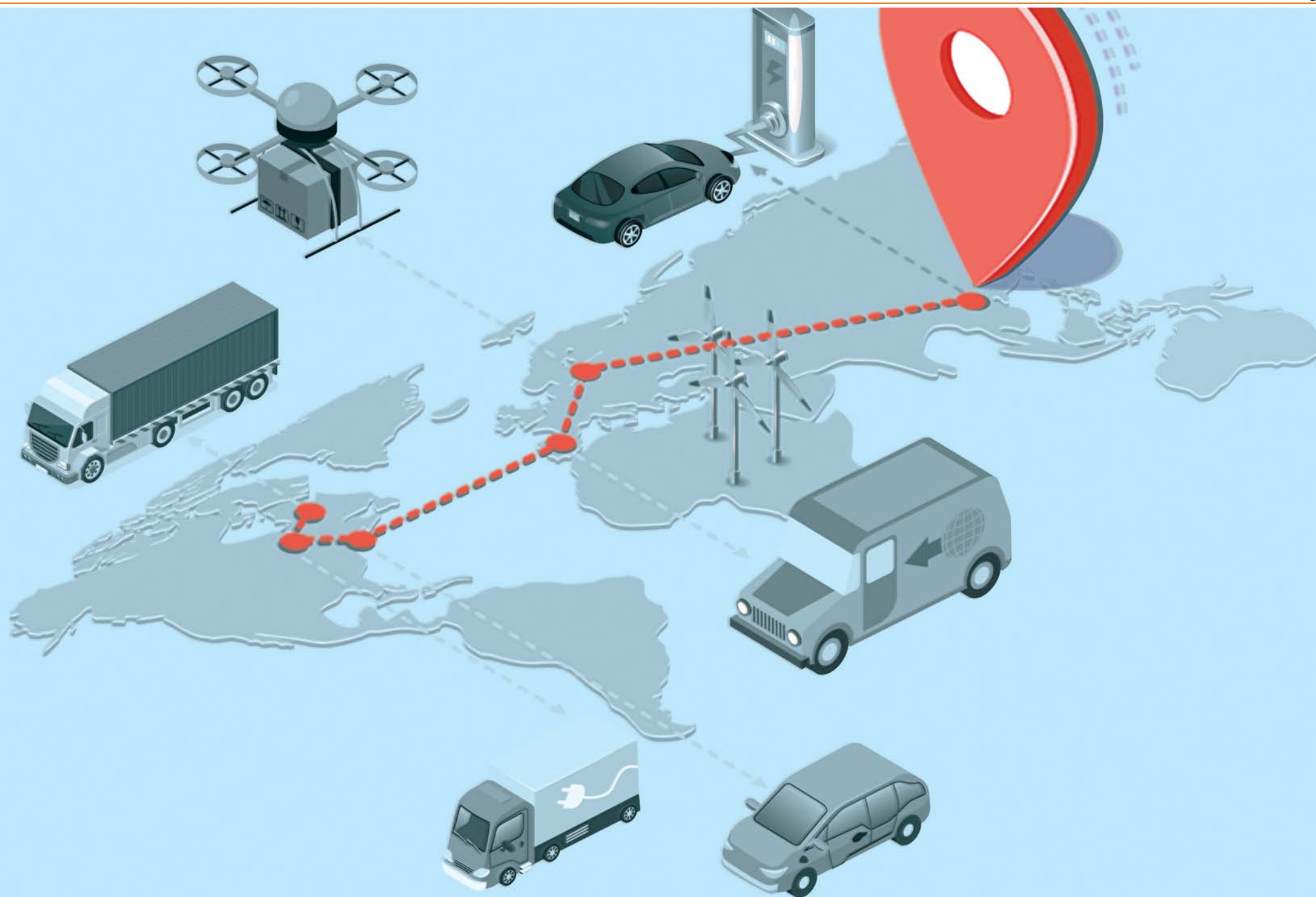
와인픽스 청담점, 일 매출 2억 돌파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운영하는 와인픽스가 청담점 오픈 첫날 매출 2억 원을 돌파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일 오픈한 와인픽스 청담점은 미국 컬트 와인부터 보르도 올드 빈티지, 이태리 프리미엄 와인, 그랑 크뤼 등급 부르고뉴 와인과 샴페인까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와인과 각종 주류와 관련된 3000여종의 상품을 한자리

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다. 나라셀라는 와인픽스 청담점 오픈을 기념해 한정상품 선착순 판매, 위스키 대방출, 특가 판매, 세트 와인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했다. 오는 30일까지 맥켈란의 대표 제품을 직접 시향해 보고, 디스틸러리 VR 체험까지 할 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세트 할인, 구매 금액에 따른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원선 기자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중대재해 예방 맞손
중기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수산물 소비 촉진 장려
한국증권금융은 4일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윤창호 사장은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구입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당사도 임직원들이 우리 수산물 소비 증가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증권금융



손보익 LX세미콘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LX세미콘이 1회용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LX세미콘 손보익 사장은 최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손 사장은 LX하우스시 한명호 사장 지명을 받았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실천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고 우리 모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LX세미콘



황철주 발명진흥회 회장, '노 엑시트' 캠페인 참여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이 마약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황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써 우리나라가 마약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발명진흥회



동국제약-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걷기 기부 캠페인
동국제약이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센시아와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센터장(왼쪽)과 동국제약 OTC마케팅부 박혁 이사(오른쪽)가 지난 달 30일 '센시아와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제약

SK이노 “전국 어디서나 ‘산해진미’ 캠페인 추진”

공원공단 등 5개 기관 MOU “전국민 친환경 인식 제고”

SK이노베이션의 범국민 ‘플로깅(Plogging)’ 캠페인 ‘산해진미’가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힌다. SK이노베이션의 실천적 ESG 활동인 ‘산해진미’는 2021년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자원봉사활동으로 처음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4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공단, 해양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5개 기관과 산해진미 캠페인 추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해진미 캠페인 확대를 위해 체결됐다. SK이노베이션은 측은 “5개 기관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해진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전 국민 친환경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국립공원공단, 해양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범국민 산해진미(山海眞美)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SK이노베이션 임수길 Value Creation Center장,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 김의욱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산해진미 캠페인을 환경보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ESG 활동으로 인식하고 범국민 활동으로 확산시켜왔다. 산해진미 캠페인에 2022년 한해 27만8498명이 참가해 약 119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유의미한 환경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친 참석 5개 기관 관계자들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정릉자연관찰로 일대에서 산해진미 활동을 시행하며 실천 의지를

다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쓰레기 되가져가기, 친환경 탐방 실천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범국민 운동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립공원공단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국장은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환경보호를 위한 산해진미 캠페인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Value Creation Center장은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문화 확산은 물론 전 국민 환경인식 제고까지 달성하도록 앞으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해 환경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LOOP FESTA’ 개막... 플라스틱 순환경제 성과 공유

‘자이언츠 LOOP DAY’ 등 실시 부산·인천 폐PET 수거체계 구축

롯데케미칼이 폐플라스틱 수거문화 개선 및 재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 구축캠페인인 ‘Project LOOP’의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LOOP FESTA’를 개최한다.

4일 롯데케미칼은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한달 동안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 참여 ▲자이언츠 LOOP DAY ▲부산지역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식 ▲소셜벤처 공모전 2기 성과공유회등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성과를 공유하



고 지역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Project LOOP’는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국내 순환 경제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폐PET병수거 약 400만 개, 리사이클 제품화 약 7만 점, 소셜벤처 8개사 지원, 자원순환 교육 약 7200명의 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3일 부산 사직구장에

서 ‘자이언츠 LOOP DAY’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 수거한 폐PET와 롯데케미칼 재생소재(C-rpet)를 활용한 리사이클 바람막이를 제작하여 지역내 유소년 야구단에 기부했다. 또한 사직 야구장 내에 자원순환 전시회와 체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의 인식제고에도 힘썼다.

9월 중순에는 부산 및 인천지역에서 폐PET수거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활동을 실시 예정에 있으며, 소셜벤처 2기 성과공유회와 3기 모집 설명회도 계획돼 있다.

‘Project LOOP’는 플라스틱 순환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

트로, 폐플라스틱 수거와 관련 소셜벤처 지원 및 업사이클 제품화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내 캠페인이다.

‘Project LOOP’ 첫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사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기업 비전인 ‘Every Step for Green’을 토대로 친환경 미래 성장 사업 확대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을 가속화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비즈니스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역,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허정윤 기자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아트카 운용 에버랜드 “가을 축제 놀러오세요”

아세안 정상회의서 유치 홍보

현대차그룹이 부산엑스포를 감성적으로 알리기 위해 K-컬처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카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운용한다.

현대차그룹은 5~7일까지(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 43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기간 중 특별 제작한 아트카 23대와 자카르타 내 주요 지역 디지털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알리기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부산엑스포의 차별화 포인트인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를 강조하기 위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3종을 아트카 차량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도네시아 올해의 차’에 선



현대차그룹은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기간 특별제작한 아트카 23대를 운용한다. /현대차그룹

정된 ‘스타게이지 X’도 투입한다.

현대차그룹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준비한 아트카 프로젝트에는 200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K-그래피티의 세계화에 기여한 ‘제이 플로우’가 함께 했다. 이번 협업으로 탄생한 아트카 차량 전면과 양측면에는 광안대교와 갈매기 등 부산의 주요 상징물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피티 디자인이 랩핑됐다. /양성운 기자 ysw@

에버랜드가 가을 축제에 돌입한다. 에버랜드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을 겨냥한 새로운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해피 땡스기빙 콘텐츠는 레서판다 레시 캐릭터가 식물 생장을 관찰하는 마법사 플랜트로에 선정돼 땡스기빙파티를 연다는 스토리다.

포시즌스가든이 가을테마정원으로 변신한다. 가을 꽃과 열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자리잡고 하늘정원길에도 코키아 수천 그루가 빨갛게 물들인다.

레시 조형물을 찾아 미션지속 단어를 완성시키는 ‘마법사 레시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재웅 기자

인사

- ◆**한양증권** ◇ 총괄 △Biz조직 총괄 진중신 ◇ 본부장 △ 멀티영업본부장 양유수
- ◆**감사원**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용진
- ◆**기획재정부** △차관보 홍두선 △기획조정실장 김연성

부음

- ▲**황근희**님 별세, 이일형·이일순·이창순씨 부친상, 봉정애씨 시부상, 김기영·조성민씨 빙부상=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12시30분. 031-900-0444
- ▲**김봉연**씨 별세, 전향주(다온산업개발 회장)·주현(그랜드코리아레저 비서팀장)씨 모친상 = 3일 오전 8시 18분,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제3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51-607-2990

WINE PICK S

CHEONGDAM

청담점



와인픽스 청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와인픽스, 와인, 맥주, 위스키, 기타주류, 글라스, 칵테일 시럽, 치즈&사케테리까지, 주류와 관련된 3,000여종의 상품을 청담 플래그십 점포에서 만나보세요!

주소 | 강남구 청담동 1-1 퍼스트 빌딩 1층
영업시간 | 월~일, 11:00~21:00

☑ OPEN EVENT

Grand Open : 9/1(금)

Grand Open Promotion : 9/1(금)~30(토)

오픈 행사 상품은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하여 9/1(금)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당일 가입 가능)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대학이 제2의 인생을 디자인하다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코앞이다. 학생들은 여섯 장의 대입원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터다. 내년 1월이면 곧바로 시작되는 정시까지 가게 된다면 초조하고 지루한 5개월여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대입시즌이 되면 으레 푸릇한 젊은이들의 결박된 삶이 조명되거나, 산업전망과 같이 뜨는 직업의 이야기가 언론에 도배된다. 거기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느라 대입 기회를 놓친 직장인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인다. 머리가 반백이 되어야 이제 공부할 겨를이 생긴 만학도들은 대입이라는 무대의 조명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대학이 학령기의 등용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만큼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리라.

숲만 보지 않고 나무까지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 재수, 삼수가 아니라 오수, 십수, 육십수의 대학 신입생도 있다. 물론 학령기 학생들과는 다르게 연거푸 시험을

보다가 대학에 온 건 아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고에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할 경험으로 대학에 온다.

이를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이라고 부른다.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만학도 전형'으로, 대학에 간다면 학령기 학생들과는 10년 정도 세월의 간극이 있는 셈이다. 이렇게 세상의 별 관심 없이 대학에 들어 온 학생들이 적지 않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대학을 보면 23살부터 83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학습자들이 200명을 넘는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대학공부를 시작하나? 당장에 만끽하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두꺼운 책을 들어야 하나? 밑도 끝도 모르는 의문이 들지만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은 오히려 유쾌하다.

그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사회적 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다르고 다양하지만 대학에 가는 성인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희망한다.

재직자들은 지금 몸 담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한다. 오랜 기간 경력단절을 끊고 새로운 직

업을 누리려는 여성들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바로 대학이다. 아이들로부터 능력있는 부모로 인정받고 싶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싶은 기초의회 의원들도 이 맘 때면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 모두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새로움을 성취하는 일이다.

필자는 작고한 소설가 고(故) 박완서님의 광팬이다. 그의 소설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꼬트머리 세대이고, 콩나물교실에다 이부수업을 톡톡히 경험했으며, 대학 갈 땐 졸업정원제로 물만 고기반이랄까 젊은 대학생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캠퍼스를 기억하는 필자에게 지금의 대학은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이다.

그런데도 수시모집이다, 정시모집이다, 이런 때가 되면 좁은 문의 학력경쟁이 극성이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이제는 열린 눈으로 보자. 대학은 성인학습의 장(場)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인생설계의 '아비투스'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서열화 대신 평생학습 서열화라도 만들어보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또 게임이 살인사건 주인공?



기지 수첩
최 빛 나
(산업부)

'겜험'. 게임혐오를 뜻한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언론 브리핑에서 "조씨가 8개월 동안 게임을 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등 게임 중독상태였다. 1인칭 슈팅 게임처럼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물론 범행 동기가 게임중독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사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혐오가 붙었다. 시민들과 일부 언론들이 게임을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는 "칼로 베는 살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노출 시켰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게임 중독을 현상보다 범행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조씨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게임 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명백한 검찰의 자제 판단으로 밝혀졌다.

게임 중독이 범행 원인이라는 과학적인 입증도 제대로 하지않고 속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게임 산업의 주축을 맡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주 목표로 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어떠한 입장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게임사의 이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비판해오던 협회가 말이다.

오히려 정치권들이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 질타를 이어오고 있다. 하태경, 이상현 의원 등은 SNS를 통해 "검찰은 의사가 아니다 진단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며 비판

했다. 권일용, 표창원 등 프로파일러 들도 현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들은 게임을 놓고 선부른 해석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게임 혐오에 대한 프레임은 묻지마 살인사건에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는 소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게임이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 사회성, 시스템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한다.

일부 언론과 시민들도 이제는 현상상을 제대로 짚어 볼때도 됐다. 게임분야를 시도 때도 없이 살인, 폭력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시선인가. 제대로 들여다 보길 바란다.

/vitr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5일 (음 7월 21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효도하는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48년생 옛 인연에 관심을 가지자. 60년생 두루 베풀면 손조롭게 해결. 72년생 항상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84년생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소지품을 조심.
- 소** 37년생 흐지부지될 수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49년생 이상의 만남은 말썽을 부른다. 61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는 성공. 73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85년생 내 생각만 주장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 호랑이** 38년생 진퇴양난인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50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 62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74년생 수고롭지만 돌아오는 실속도 있다. 86년생 부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 토끼** 39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해결된다. 51년생 오늘의 거래는 좋은 성과가 있다. 63년생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르고 소득도 높다. 75년생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빛을 발한다. 87년생 일 처리는 미루지 않는 게 좋다.
- 염** 40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가기에 건강이 별로 신통치 않다. 52년생 힘을 길러야 할 때. 64년생 가정을 등한시하면 불화가 생긴다. 76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라. 8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망신 수이다.
- 뱀** 41년생 일에 도전장을 내 보는 것도 좋다. 53년생 의견대립이 생기나 발전적으로 나간다. 65년생 잡을 능력을 미리 키워 두는 것이 좋다. 77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89년생 식구원망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 말** 42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할 듯. 54년생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로지 노력뿐. 66년생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온다. 78년생 과신 말고 겸손하게 들어라. 90년생 일에 실증 내지 말고 정선무장을 더 단단히.
- 양** 43년생 소원성취보다는 인내를 가져라. 55년생 문서언이 강하니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67년생 새 인연이 새로운 거래를 만든다. 79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다. 91년생 봉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 원숭이** 44년생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자제하라. 56년생 구설수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날. 68년생 머리가 맑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80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92년생 창고는 한발 물러서는 것도 나가는 방법이다.
- 닭** 45년생 뭔가를 시작하기에 지금이 딱 적기. 57년생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노를 열심히 저어야 성공. 69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81년생 행복은 나 뿐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것. 93년생 배가 아프니 바깥 활동을 자제.
- 개** 46년생 막혔던 구멍이 뚫려서 뚫리는 날. 58년생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70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자제해야. 82년생 길 나서는데 산 들바람이 불어준다. 94년생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오래가지 못하니.
- 돼지** 47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하루. 59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71년생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83년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의 도는 왜곡. 95년생 달걀로 바위치지 말고 공부로 공을 들여보는 것이.

김상회의四季

사주를 믿지 마세요 ②



즉, H는 수소원자의 기호이고 O는 산소의 기호이다. H와 O는 각각은 그냥 독자적 요소일 뿐이다. 그러나 수소원자 2개가 산소원자 1개가 만나면 물이 생긴다. 이러한 화학적 결합이 있을 때 비로소 물이라는 소중한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때 물이 왕성하면 물바다인 것이니 그러니 글 자적 뜻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주를 믿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다. 마치 지니가 병 속에 갇힌 마술사를 꺼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마술사는 그냥 계속 갇혀있을 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음과 같다.

사주감명은 사실 고도의 통변이 요구된다. 단지 글자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신살 한두 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석되게 되면 말 그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고 만다. 대운과 세운 그리고 월운과 일운 거기에 더하여 시까지 대입하여 세밀하게 보아야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보통의 감명이 이뤄지곤 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통변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주의 원리에 함이 있어도 좋은 작용이 아니라면 오히려 충충해주는 지지나 궁합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흉이 변하여 길이 되거나 최소 원충작용을 하기에 이와 같이 글자 요소대로만 보다 보면 감명에 실수를 하게 된다. 즉 함을 충이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충이 안 좋은 함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간과한다. 바로 마음 씀이다. 사주명조 감명이 수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 에너지가 함께 작동되게 되면 이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필자는 말하고 있다. "사주를 무시하세요!" 라고.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5	9	7	3	8	4		
6	8						9	3
1								6
8			2	3	6			7
			4	9				
9			8	7	1			4
7								2
4	6						3	5
	1	3	6		4	7	8	

		2					8	
	1	3	4		8	7	9	
8	7							1 2
	6		9		4	3		
				6				
	9		5	2			6	
2	4						8	6
	3	6	8		9	5	2	
		1					9	

정답

6	8	7	2	9	5	1	9	
9	5	1	2	8	6	2	9	7
2	9	7	9	1	5	8	6	2
7	9	5	1	5	8	9	2	6
8	2	9	6	2	7	1	2	5
2	1	6	9	5	2	9	7	8
9	2	8	6	9	7	5	1	
5	6	9	2	7	1	2	8	9
1	7	8	5	9	2	6	9	2

7	2	6	9	5	2	1	8	9
1	2	9	6	7	8	9	5	2
9	8	5	2	9	1	6	7	2
8	9	7	2	1	9	2	6	5
6	9	1	5	9	2	8	2	7
2	5	2	7	8	6	9	9	1
2	1	9	9	6	5	7	2	8
9	6	2	8	2	7	5	1	9
5	7	8	1	2	9	2	9	6

고난도의 월드컵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2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사 기리는 국화·메모 수북... “지켜주지 못해 마음 아파”

르포

교사 사망 49일, 서울 서이초 가보니

“선생님께 인사는 했어?”

4일 오전 서울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한 학부모가 아이의 두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교사가 가르치던 학급과 같은 학년, 다른 반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작별 인사를 마친 두 사람은 곧이어 교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땀다. 학교 한쪽에 준비된 추모 공간에는 세상을 떠난 교사를 기리는 국화와 메모가 수북하게 쌓였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곳에서는 행복하셔야 해요’, ‘선생님, 교육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 ‘얼마나 힘드셨나요. 저희가 선생님의 바람 잊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가는 길 외로우실까 봐 또 찾아왔어요. 햇살처럼 환한 선생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간 한편에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는 글이 포스트잇에 적혀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문 앞에는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이후로는 사회하라’,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합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등 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길게 늘어섰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제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 앞에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이현진 기자



4일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 한편에는 동료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는 글이 포스트잇에 적혀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안승진 수습기자

교육계 “A씨 사망, 추락한 교권 탓”

“교사, 가끔 학생과 어려움 있지만 그보다 ‘학부모 갈등’ 더 큰 부담”

“두 자녀가 초등교사 꿈꾸지만 ‘다른 꿈’ 가져보라고 조언해”

이날은 고 서이초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육계 종사자들은 A씨의 사망이 ‘추락한 교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한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발걸음은 오전 9시부터 계속됐다. 추모 공간을 찾은 교사들은 한참이나 떠나는 발걸음을 망설였다.

경기도에서 2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윤모 씨는 “많은 교사와 착한 아이들까지 뒤돌아서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귀한 딸일 텐데 혼자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 지 18년째가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외국인 교사는 “17년간 워런 교사로 일하며 한국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돼 이를 추모하고자 참석했다”라며 “교사들이 아이들과 가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학부모들과 갈등이 교사들에겐 더 큰 부담이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퇴직한 교사라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 자신이 교단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그는 “후배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슴이 미어져

참여하게 됐다. 나 또한 작년까지 근무하며 학부모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라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직을 부르는 애’라는 말이 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명예퇴직해야겠다던가, 이런 말들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녀와 함께 추모 공간을 찾은 학부모들 역시 침묵을 지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산에서 추모공간을 찾았다는 학부모 홍 모씨는 “저희 애들이 유치원생이 있을 때도 어떤 학부모가 허위 민원으로 원장님을 괴롭힌 적이 있었다”며 “이상하게 갑질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더 이상 그런 학부모 때문에 힘든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한 학부모

모는 이날 두 자녀와 함께 서이초를 찾아와 “아이들은 엄마처럼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교단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내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꿈’을 가져보라고 조언했다”고 말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이초 주최로 학교 강당에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49제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직원단체 대표들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오후 4시30분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엄정 대응 등 강경 방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전국 교사들은 7주째 서울 광화문과 국회 등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와 전북 군산 등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이현진 기자, 이청하·안승진·김주형·차현정 수습기자 lhj@metroseoul.co.kr

“외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비 대상 확대를”

서울시민, 민원제안 창구에 게시 차선 시인성 개선 등 시장에 요청

서울시민들이 아이돌봄비 대상 확대, 차선 시인성 개선, 한강공원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 제고를 요세한 시장에 요청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아이돌봄비 수혜 대상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을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지급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

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다.

시민 A씨는 시가 대상 자녀 연령을 설정한 것을 두고 “대체 24~36개월은 누가 어떻게 왜 정한 것이냐”면서 “많은 양보해서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양육 정책이 좀 더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됐으면 좋겠다”며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선 가정 내 혈연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만 36개월 이하를 시범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예산과 정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다자녀·장애부모·다문화가정, 기타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부재·입원한 사례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확인되는 가정도 아이돌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컨벤션센터서 11일 개최

수원시는 9월 11~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2023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세계유산 분야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대표 행사다.

올해 포럼은 9월 11일 오후 1시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수원시립공연단이 ‘무예24기’ 특별 공연을 하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용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세계유산의 활용(Heritage X)’를 주제로 메타버스, 사회공헌 사업,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유산을 활용해 쉽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례들을 소개하며 세계유산과 공존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작품 철거

서울시가 4일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는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이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

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에 편향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서울시가 하루빨리 임씨의 작품을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5일 (화)

음력 : 7월 21일

수도권 날씨

24~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05 | 해질 / 18:5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젤렌스키, 국방장관 전격 해임... “새 접근법 필요”
▲ 네타냐후, 아시아-아랍-유럽 잇는 광케이블 설치사업 제안 /사진 뉴스스

▲ 미네소타 교도소, 폭염에 입방거부 재소자들과 담판 ‘정상회복’
▲ ‘한국사위’ 래리 호건 美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문 닫은것은 아냐”



▲ 바이든 “시진핑 G20 불참 실망... 만나게 될 것” /사진 뉴스스
▲ “중국 4대 은행, 서방 제재 후 대러 대출 4배로 급증”



지난 겨울에 잡은 옥돔·굴비 등 명절 선물로 '인기' 나



Life

셀트리온
베그젤마
호주판매 허가
L2



미래 세삭 지원으로 '드림 UP' 일상 속 환경보호로 '희망 UP'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있는 행동(Action for Positive Change)' 실천을 목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생태계 조성을 실천하고 있다. 앞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며 그 첫 단추를 끼웠으며, 'BIS Summit 2022 반부패 서약'에 동참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래세대 위해 사랑을 '드림(Dream)'

교보증권은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드림업(Dream up)'이 있다.

드림업은 보호, 주거, 생계, 교육, 정서 분야로 나눠 자립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향후 시혜자로 성장토록 하는 장학금 프로젝트다. 올해는 교보증권과 인연을 맺은 지정복지단체인 돈보스코아동복지센터와 상록보육원, 신명보육원, 좋은집보육원, 동명아동복지센터 총 5곳에서 14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선발해 사회협동조합인 드림메이커스를 통해 교육지원 장학금 2800만원을 전달했다.

송의진 교보증권 경영관리실장은 "사회와 환경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드림업 2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자녀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2012년부터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18회째인 '드림이 따뜻한 밥상'에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을 담은 식량키트 290개를 만들어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을 통해 결연아동 가정으로 전달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상과 함께 건강한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세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일대일 결연아동 후원 프로그램인 '드림이 희망기부'는 매월 임직원 개인 기부금과 회사 기부금을 매칭그랜트로 적립해 비영리단체(NPO)인 기아대책을 통해 국내 및 해외아동(베트남)을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376명이 참여 중이며 국내아동 281명, 베트남 아동 72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정복지단체인 좋은집보육원, 신명보육원, 동천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긴급구호 성금을 시작으로 한 강원도 산불 재해구호까지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지역 홀몸 어르신들 가정에 1150만원 상당의 쿠팡마트 200개를 기부했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최원아 기아대책 과장에게 방학 중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드림이 따뜻한 밥상'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교보증권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후원 '드림업' 보호·생계·교육 등 실질적 지원 나서 임직원과 매칭그랜트로 결연아동 후원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포인트 기부 일상 속 탄소 절감 운동 7000여 건 실천

202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책임있는 경영으로 ESG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기업문화...임직원, 발 벗고 나서

사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친환경 기업문화 정착도 장려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며 포인트를 적립해 기부하는 그린레이스를 진행 중에 있다. 실천항목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나무심기, 저탄소 인증상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으며, 캠페인 시작 이후 약 500여명의 임직원 참여로 7000여 건의 일상생활 속 탄소절감 운동을 실천했다.

이석기 대표이사는 "임직원 가족 모두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이고 주변으로 전파되면 환경을 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ESG 경영에 앞장 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 2000만원은 환경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 에코캠퍼스 설립 및 생태계 복원과 꿀벌보존을 위한 밀원수 식재 및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매년 창립기념일(11월 22일)에는 그 의미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창립기념일 특별주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참여해 김장담그기, 사랑의 도시락·빵 만들기, 무료급식, 벽화그리기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

아가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작년 창립기념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에 동참하고자 '사랑의 헌혈'을 진행해, 임직원 100여명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올해 창립기념일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김장담그기, 사랑의 도시락 등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대면봉사 활동을 계획 중이다.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도 적극적이다. 매주 자율적으로 전국 권역별 지정복지단체 중 희망하는 기관에 방문하는 정기봉사활동 및 마음이 통하는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 봉사 주제부터 활동내용까지 기획하고 실시하는 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친환경 기업 위해 전진

교보증권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친환경 활동내역과 성과의 외부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고자 함이다. 2022년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실현이라는 교보증권의 ESG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각 영역별 실천사항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 최초 발간부문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송의진 경영관리실장은 "책임있는 행동 실천으로 ESG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ESG 성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저탄소 친환경 기업을 이루고자기 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가입했다. 또한, 사업장 및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ZERO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ESG 투자심사 기준을 고도화해 다양한 금융투자 및 상품출시때 상시 적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송의진 교보증권 경영관리실장(왼쪽)과 조영철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진 교보증권 경영관리실장(왼쪽)이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최초발간부문 우수보고서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멀티골 음바페 득점 1위' PSG, 2연승 달리며 2위...이강인 결장 /사진 뉴시스
▲한국,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서 체코에 14-1 대승

▲한국, 월드태권도그랑프리서 동메달 2개로 마무리
▲류현진, 7일 MLB 최약체 오클랜드 상대로 4승 재도전



▲한승 돌린 클린스만호...황희찬·조규성·오현규 부상 회복
▲장효준, LPGA 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10위...데뷔 첫 톱10 /사진 뉴시스